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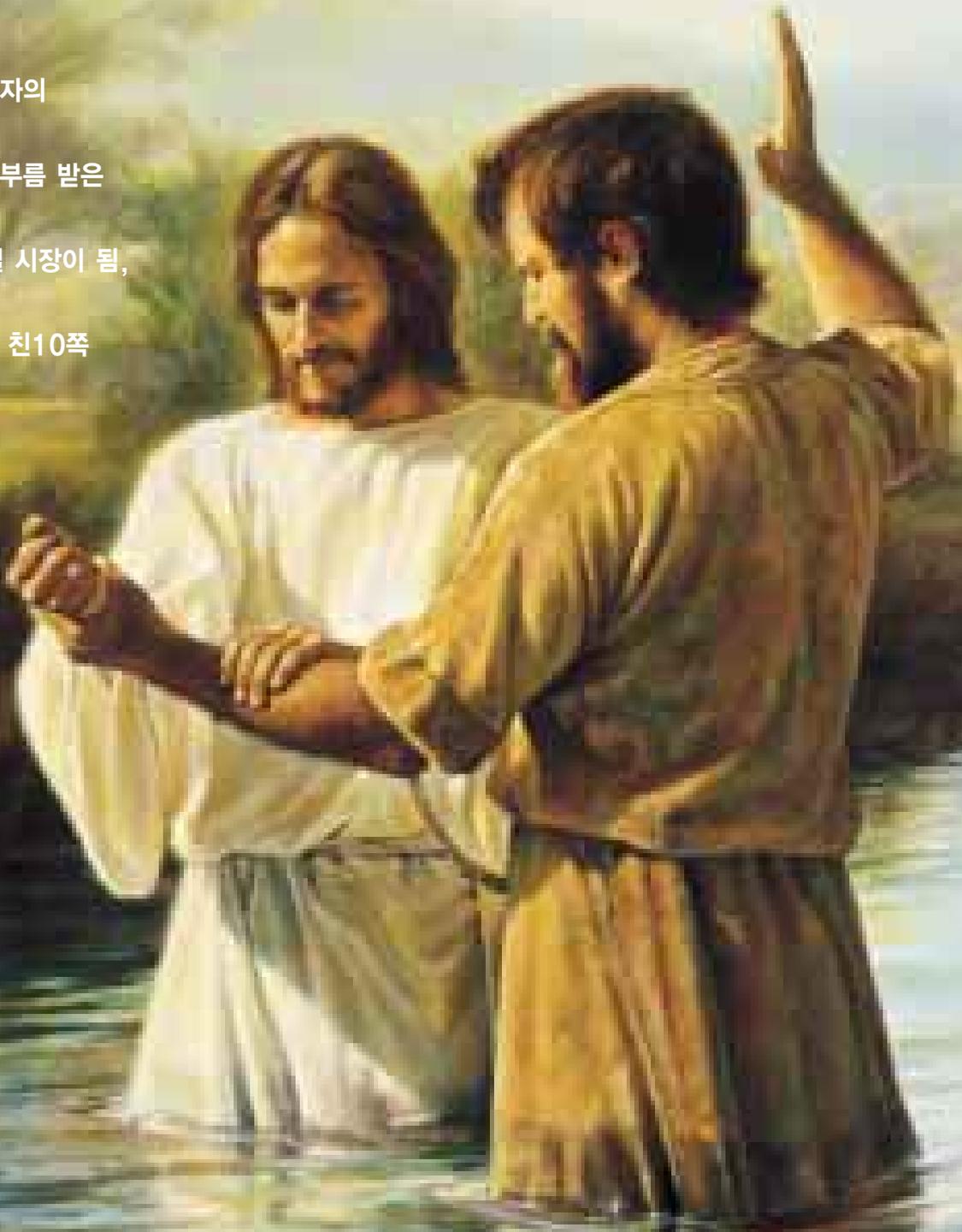
커버 스토리:

신화에 대한 선지자의
간증, 2쪽

비참해지기 위해 부름 받은
걸까? 26쪽

장미반 청녀, 1일 시장이 됨,
44쪽

다음 단계: 청녀, 친10쪽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 ... 이분들의
실재성과 개별성에 관하여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 개별성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 의해 침례 받으셨을 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물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으며, 성신은 비둘기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저는 이 세 분을 믿습니다”, 2쪽.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회화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월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러드, 조셉 비 위스린, 리처드 지 스퀴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라프,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가무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빅터 디 케이브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란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새나 버틀러,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알 발 존스,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빈, 샬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라, 비버안 폴슨, 사라 알 포터, 제니퍼 로즈, 돈 엘 셀,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라, 채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털, 킴벌리 웹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맥 캔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캐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스,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 484호, 제 43권, 제 7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6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서모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6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권역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July 2006 No. 7.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화장단 메시지: 저는 이 세 분을 믿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14 독수리 날개 위에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 20 의인의 노래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가족을 강화함
- 30 복음의 충만함: 육에 속한 사람들 벗어 버림
- 32 평화의 땅이 되어 가는 캄보디아 *마리사 에이 위디슨*
- 36 죄의 시슬을 끊음 *에이치 로스 위크맨 장로*
- 40 후기 성도의 소리
아이들을 확인하라 *매리 리치 군윈*
나의 결정에 충실함 *야즈민 오제다*
축복 조엘 *알 브라이언*
- 48 애독자 편지

36 죄의 시슬을 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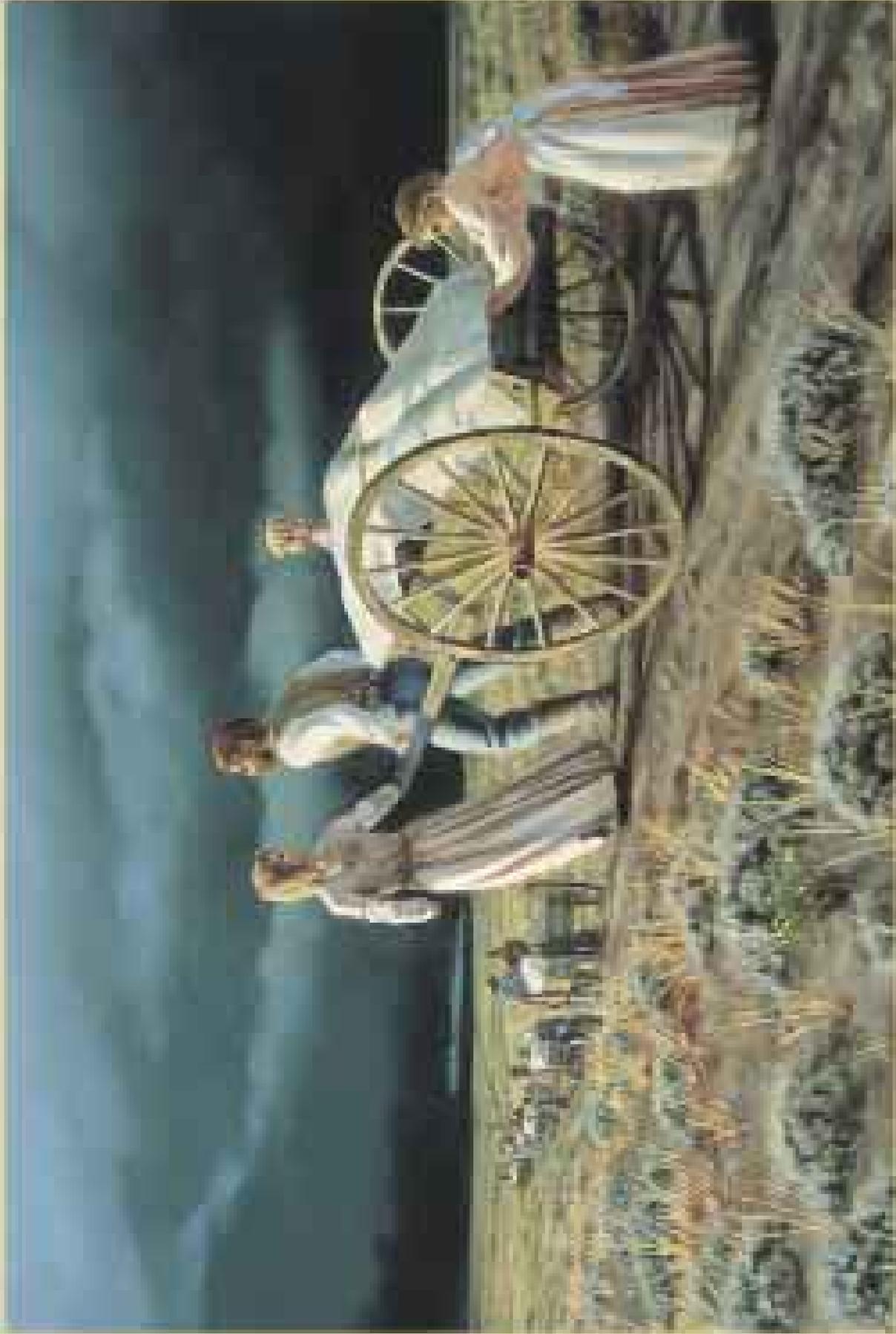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제언은 여러분이 리아호나를 사용하여 만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여러분의 공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 손수레 또는 테니스화로”, 10쪽: 여러분의 가족이 탐험가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나타내는 지도를 만든다. 포르투갈 청소년들의 간증에서 인생 여정을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도와주는 개인적인 자질들과 복음 원리들을 찾는다. 지도에 그 내용을 적는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용감하게 계획할 수

있음을 간증한다. “독수리 날개 위에”, 14쪽: 가족에게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날려 보게 한다. 진짜 비행기를 제조하기 위해 무엇이 있어야 할지 토론한다. 라이트 형제 이야기를 읽고 성공적인 비행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찾는다. 가족에게 이 기사를 읽고 이 세 가지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해 보도록 한다. “죄의 시슬을 끊음”, 36쪽: “영적인 속박” 부분을 읽고, 영적인 속박으로 이끄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한다. 긴 종이 조각에 답을 적어





폭풍우 속으로: 바이런 픽스틴

이번 150주년 손수레 개척자 기념 행사에서 우리는 1856년과 1860년 사이에 아이오와 주 아이오와 시티와 네브래스카 주 플로렌스에서 솔트레이크 밸리까지 여행한 10대의 손수레 대대를 기념한다. 대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1,600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했지만, 이 두 대대는 와이오밍의 이른 눈보라 속에서 오토 가도 못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청소년

- 9 짧은 메시지
시련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음
마리아 루이사 곤잘레스 하로
- 10 배, 손수레 또는 테니스화로
- 24 포스터: 상호 지지
- 26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비를 맞으며
카다리나 베즈 버치
- 44 1일 시장
폴 밴던버그

26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비를 맞으며



이번 호에 숨어 있는 정의반 반지를 찾으면서
항상 기도할 것을 기억하세요.

종이 사슬을 만든다. 기사의 마지막 두 단락을 읽고, 구주께서 죄의 사슬을 끊도록 도우시는 방법들을 토론한다.

종이 사슬의 고리를 찢고,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의 동생, 나의 모범”, 친8: 정직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토론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의 인용문을 읽는다.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와 함께 정직과 부정직의 예가 되는 이야기들을 나눈다. 가족 각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읽거나 역할극을 하게 하고 정직함으로써 얻는 축복에 대해 토론한다.

“신권으로 축복을 받음”, 친14: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들과 영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전시한다. 가족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고르게 한다. 기사를 읽는다. 그 물건들을 다시 살펴보고 왜 그 물건들이 가치가 있는지 토론한다.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간증한다.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린다 매글비
- 친6 월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바로 이곳입니다
- 친8 나의 동생,
나의 모범
새나 버틀러
- 친10 청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김벌리 웹
- 친13 일요일 상자: 연필 돌리기
-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신권으로
축복을 받음 더글라스 엘 콜리스터
- 친16 특별한 증인: 누구일까요?



친10 청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표지

예수를 침례 주는 침례 요한, 그레그 울슨, 복사 금지.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미리엄 올리베이라 베르시아니 네리, 모델이 포즈를 취함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신권 축복, 9, 32, 42, 친14쪽
가정 복음 교육, 8, 42쪽	신앙, 친2쪽
가정의 밤, 1쪽	신화, 2쪽
가족 역사, 32쪽	영감, 40쪽
개인 발전, 친10쪽	예수 그리스도, 2, 30, 36쪽
개척자, 친6쪽	육에 속한 사람, 30쪽
경전 공부, 14쪽	인도주의적 원조, 32쪽
교육, 44쪽	일요일 상자, 친13쪽
기도, 14, 친4쪽	자제심, 14, 30쪽
모범, 10, 41, 42, 친8쪽	재정, 25쪽
방문 교육, 25쪽	정직, 친8쪽
상호 향상 모임, 24, 친10쪽	죄, 36쪽
상호부조회, 25쪽	찬송가, 20쪽
선교 사업, 26, 32쪽	청녀, 친10쪽
선택의지, 14, 30, 36쪽	캄보디아, 32쪽
성신, 2, 14쪽	태도, 9, 14, 26쪽
성전, 25, 41쪽	표준, 44쪽
속죄, 30쪽	하나님 아버지, 2, 14쪽
순종, 친8쪽	희생, 36쪽
시련, 9, 20쪽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호함이나 주저함 없이 믿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저는 이 세 분을 믿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분명 신앙개조 제1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종교의 중추가 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공표하면서 이를 첫 번째로 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1:1)

이 선언의 중요성은 선지자가 공표한 또 한가지 말씀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아는 것이 복음의 첫째 원리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6:305)

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포괄적인 선언들은 주님께서 위대한 중재 기도에서 하신 말씀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저는 몇 년 전, 교회에 반대하는 한 비평가가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쓴 소책자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책자는 한 세기 이상 되풀이되어 온 궤변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믿음을 가진 우리의 친구들, 제가 알며 매우 존경하는 많은 분들 중 그 누구와도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 기회를 통해 모든 신학적인 주제들 중 가장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분은 저의 아버지요, 제 영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인간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창조주이시자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개체이시고, 실재하시며, 하나의 독립체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교리와 성약 130:22)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구의 창조에 대한 경전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세기 1:26)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이 말하듯,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까? 이는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사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분들은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목적과 사업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한 용대하고 신성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로 결속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70여 년 전 제가 선교사로서 런던 하이드 파크 야의 모임에서 말씀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한 야유꾼이 제 말을 자르고 “당신은 왜 요한복음 4장 24절의 ‘하나님은 영’이라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서 그가 인용한 구절 전체를 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한복음 4:24)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은 영과 육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존재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영체와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이 죽을 때 실제로 사망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각자는 육신이 죽은 뒤에도 영이 독립된 개체로서 계속 존재하게 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희생을 통해 가능해진 거룩한 계획에 따라 영과 육이 재결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음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제가 육신을 가진 동시에 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위 있고 능력 있고 아름다우며 빛나는 몸과 제 몸이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은 영원하고 제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분에 대한 저의 존경심을 더욱 높일 뿐입니다. 저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그분께 힘을 의지하며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체를 간구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다하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모든 인간의 지혜보다 큼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의 권세는 자연의 힘보다 크며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품는 사랑으로,

어떤 이의 사랑보다 더 큼니다. 모든 세대에 이르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업이요, 영광입니다.(모세서 1:39 참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 (요한복음 3:16)십니다.

이분이 제가 경외하고 존경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바로 제가 두려워 떨며 바라보는 그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예배 드리며 영예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서 그분께 나아와 말하라고 제게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빛과 지식과 이해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권세와 약속으로 영원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그분의 음성에 감사합니다. 또한 구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분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시고, 신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태복음 3:17)라고 선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한 변형의 산에서 그분이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과 천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옛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예 수님께서는
그분을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많은 많은 아들들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 의해 침례 받으셨을 때 그분이 자신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으며, 성신은 비둘기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마태복음 17:1~5)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서반구의 백성들에게 소개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제3니파이 11:7)고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경륜의 시대에 기도로 그분을 찾았던 한 사람에게 그의 모습을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 스미스-역사 1:17)고 선포하신 하나님께 경외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 **성신을 믿는다.**
(신약개조 1:1)

그분의 장자

저는 살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요, 육체를 가지신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고 독립된 개체로서의 그분을 믿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장엄한 말로 복음서를 시작한 요한의 선언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2, 14)

저는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다윗 가계의

성신은 진리를 간증하는 분으로 인간이 서로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후손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였으며, 그분의 탄생은 위대한 이사의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저는 그분이 지상의 삶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빛과 진리를 우리가 준수한다면, 그 빛과 진리는 세상을

구하고 인류에게 승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권에 축복의 권세, 병고침의 권세, 지상의 제반 문제를 다스리는 권세,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갈보리 언덕에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가 악을 버리고 그분을 따른다면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고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부활의 실재와 권세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희생과 구속을 통해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며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 모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은사를 받음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그분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 모든 남녀에게 우리 아버지의 왕국에서의 영생과 승영의 기회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이자 구속주

지상에 살았던 그 누구도 그만큼 위대한 자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희생에 필적할 만한 희생을 치른 자가 없었으며 그가 주신 축복에 필적할 만한 축복을 주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 어떤 모호한 말이나 타협 없이 그분의 신성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경건하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말합니다. 저는 그분의 아버지께 예배 드리듯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 드립니다. 저는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상처난 발과 손과 옆구리 앞에 무릎 꿇으며 그분이 제게 주시는 사랑에 놀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아들은 오래 전 우리 각자에게 팔을 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부활하신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실제로, 분명히, 한 개체로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분께서는 상심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

“... [예수께서] 가서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요한복음 21:12~13)

경전은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사람들과, 부활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대해 전해 줍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며 그분을 본 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교리와 성약 76:22~24)

이분이 바로 제가 믿고 간증 드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경전의 말씀에서 오며, 그러한 간증은 성신의 권세를 통해 옵니다. 이는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이 계시해 주시는 거룩하고도 놀라운 은사입니다. 저는 성신이 거룩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거룩한 신회를 구성하는 영적 인격체임을 믿습니다.

성신의 지위의 중요성은 주님의 다음 말씀에서 분명해집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2:31~32)

고대에도 성신이 신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나니아와 땅을 판 대가의 일부를 감추었을 때 베드로와 아나니아가 나눈 대화에서 증명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 ... 없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사도행전 5:3~4)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구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는,

구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요한복음 14:26 참조)

성신은 진리를 간증하는 분으로 인간이 서로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위대한 권고의 말씀에서, 몰몬경이 참되다는 인식은 “성신의 권능으로” 주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모로나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모로나이서 10:4~5)

저는 이 권능과 은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세 분의 개별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 ... 이분들의 실재성과 개별성에 관하여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 개별성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 의해 침례 받으셨을 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물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으며, 성신은 비둘기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마태복음 3:16~17 참조)

저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압니다. 아들이 부모를 닮았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드렸을 때, 자신에게 기도하신 것은 분명 아니었겠지요!

그분들은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목적과 사업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한 웅대하고 신성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로 결속됩니다.

배반당하기 전에 동산에서 드린 위대하고 감동적인 기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사도들에 대해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간구를 드렸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한복음 17:20~21)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완전한 이 화합이 그 세 존재를 신성한

신회에서 하나로 결속해 줍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요, 놀라운 일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은 그분들이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점이며 우리가 그분들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분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위대하고 참으로 놀라운 진리에 대해 간증합니다.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이를 증언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에게 신앙개조 제1조를 암송해 보라고 한다. 신회의 각 구성원의 본성과 거룩한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힝클리 회장의 선교사 시절 경험담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족에게 신회의 한 분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나누도록 제안한다.

2. 방문 전에 종이 세 장을 준비하여, 각각에 신회의 한 분을 나타내는 단어, 문장, 또는 성구를 찾아 적는다. 방문 중에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어 주고 가족에게 각 사항이 신회의 어느 분을 나타내는지 맞추도록 한다. 각 인격체에 대한 힝클리 회장의 간증을 전한다.

3. 하나님의 친근한 속성에 대한 힝클리 회장의 말씀을 읽는다. 방문한 가족에게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신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간증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시련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음

마리아 루이사 곤잘레스 하로

열

일곱 살 때 나는 과달라하라의 집을 떠나 멕시코의 교회 학교인 베네메리토 데 라스

아메리카스에 공부하러 갔다. 그곳에서 나는 최상의 건강 상태는 아니었지만 매우 행복했다.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나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과달라하라로 돌아가 몇 가지 검사를 받기 위해 일주일 동안 학교를 쉬게 되었다.

집에 돌아오자 얼굴 전체에 안면 마비가 왔다. 심각한 신장 장애로 입원을 해야 했다. 그 다음 두 주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았고 소리를 듣거나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의사들은 나의 맥박이나 체온이나 혈압으로 미루어 내가 살아나리란 희망을 갖지 않았다.

어머니는 감독님께 전화했고, 그는 와서 나를 축복했다. 나는 신권의 권능을 느꼈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한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으며, 보거나 들을 수도 없었다. 와드

회원들의 도움과 금식 기도 덕분에 나는 계속해서 조금씩 회복되었다. 투석도 받았다. 어머니가 신장을 기증해 주셔서 의사들이 이식 수술을 했다. 그러나 5개월 후, 내 몸은 그 신장을 거부했으며 현재 나는 다시 투석을 받고 있다. 또한 다시 한번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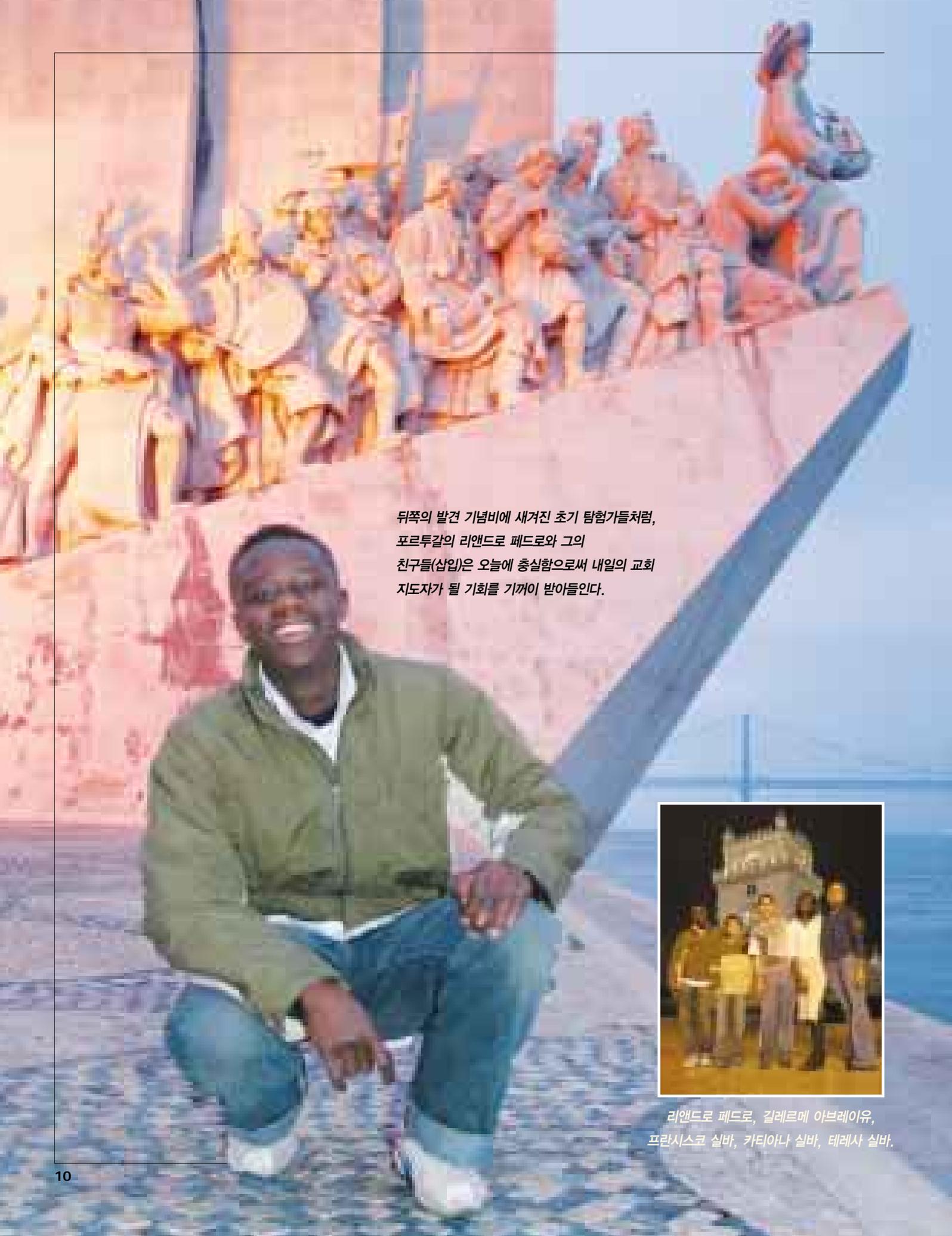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며, 그것은 내게 큰 만족감을 준다. 내가 다시 건강하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이 경험으로 인해 강한 간증을 얻게 되었고 그 간증이 날로 커지는데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보상을 얻기까지 극복해야 할 다양한 시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터서 12:27)

내가 다른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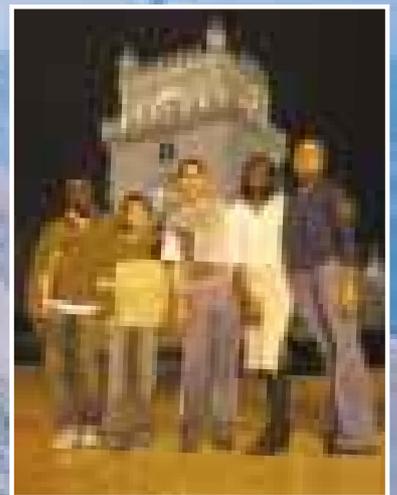
것이다. 내가 충실하고 순종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안다. 때때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는 미소로 시련에 대처하려 하며, 영원에 비하면 이 지상 생활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용기가 꺾일 때 저는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찬송가, 142장)를 떠올리는데, 그러면 다시 행복한 기분이 든다. 찬송가는 내게 평안을 주며 감사를 느끼게 해 준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축복하셔서 힘을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 준다. ■





뒤쪽의 발견 기념비에 새겨진 초기 탐험가들처럼,
포르투갈의 리안드로 페드로와 그의
친구들(삼입)은 오늘에 충실함으로써 내일의 교회
지도자가 될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리안드로 페드로, 길레르메 아브레이우,
프란시스코 실바, 카티아나 실바, 테레사 실바.

배, 손수레 또는 테니스화로

영감 어린 포르투갈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계획하면서 좋은 모범을 보임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리 앤드로 페드로(16세)는 주일학교에서 평원을 건넌던 개척자들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페드로는 개척자들이 미지의 땅을 향해 걸었던 용기에 대해 늘 감탄했다. 그것은 그의 조국 포르투갈의 역사의 한 몫을 장식한 몇몇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개척자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광활한 북미의 평원을 건너기 전에, 1400년대 후반과 1500년대 초의 탐험 시대 동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아메리고 베스푸치 및 페르디난드 마젤란과 같은 용감한 탐험가에 의해 신대륙으로 가는 항로가 발견되어야 했다. 이 탐험가들 중 많은 사람들은 포르투갈에서 항해자 교육을 받았거나 포르투갈 정부의 후원을 받았던 이들이다.

포르투갈 리스본 스테이크의 리앤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타거스강 건너 대서양을 바라본다. 이곳 발견 기념비 근처에서 이 위대한 탐험가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가장자리, 또는 점점

뜨거워져 결국에는 필필 끓는 바다로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라 믿었던 미지의 바다로 향해했다.

그러나 개척자들처럼, 이 탐험가들도 용감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해야만 했습니다.”라고 길레르메 아브레이우(13세)는 말한다.

“그들이 해 낼 수 있으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탐험가들은 앞장섰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꿈을 따랐습니다.”라고 카티아나 실바(14세)는 말한다.

1847년의 개척자처럼,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많은 청소년처럼.

현대의 개척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침반이나 지도도 없이 맹목적으로 인생을 향해하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누가 인도할 것인가? 비전을 가진 용감한 탐험가는 누가 될 것인가?

교회의 청소년에 관해 말하면서 길레르메는 “우리가 될 거예요. 우리는 탐험가의 신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구하고 탐구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찾아왔어요.”라고 말한다.





이 포르투갈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와 신앙에 의해 그들을 따르도록 고무될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 가족은 우리의 모범을 통해 우리를 따르게 될 거예요.”라고 테레사 실바(15세)는 말한다.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를 따를 거예요.”라고 길레르메는 말한다.

몇 년 안에 오늘의 청소년들은 내일의 교회 지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돼요.”라고 카티아나는 말한다.

위험한 바다

15세기에 탐험가가 된다는 것은 구대륙이든 신대륙이든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일은 아니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반항하는 선원들과 부딪치고, 난파선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미지의 땅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세상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탄의 영향력은 종종 삶의 고난을 가중시킨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항상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카티아나는 말한다.

그녀와 친구들은 모든 젊은 탐험가들이 생의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 의지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도구를 제안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경전 공부이다.

“우리는 선지자를 따라야 돼요.”라고 리앤드로는 덧붙인다.

“우리는 또한 용감해야 돼요.”라고 프란시스코 실바(14세)는 발견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많은 탐험가들을 바라보면서 말한다. “친구들이 놀릴 때 자신의 믿음을 옹호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예요.”

만일 콜럼버스가 그가 행하도록 영감 받은 것을 행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더 걱정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도할 수 있는 용기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있었던 세대 중 가장 훌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의무에 더욱 충실합니다. 유혹에 더욱 강력하게 맞섭니다. 표준대로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지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감미롭고 아름다운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원방에 세우는 기, 세상을 비추는 빛”, 리야호나, 2003년 11월, 84쪽.

약속의 땅

물몬경의 선지자 니파이는 탐험의 시대, 또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도래한다는 것을 예견했다.

“또 내가 보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많은 물들을 사이에 두고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에게서 떨어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매, 그가 많은 물들 위로 나아가서는, 참으로 약속된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의 자손들에게 이르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매 그들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많은 물들 위로 나아가더라.”(니파이전서 13:12~13)

이 탐험가들은 복음의 회복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14세 소년을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장소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 결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이 회복됨으로 인해 온 세상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축복과 약속을 얻게 되었다.

리앤드로와 친구들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또 하나의 약속의 땅, 즉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사야 11:9)을 향해 나아가는 길, 그리고 그 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가는 길을 정하도록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가 충실하다면,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거예요.”라고 리앤드로는 말한다.

“우리가 충실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라고 길레르메는 결론짓는다.

그 길은 배를 타고 가든 손수레를 끌고 가든 테니스화를 신고 가든,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구주께서 도우실 것이다. ■



포르투갈의 탐험가들

역

사기들이 탐험 시대라 일컫는 시기에는 포르투갈과 관련된 유명한 탐험가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 몇몇은 포르투갈인이었고 그 외 사람들은 포르투갈에서 항해학을 공부했거나 포르투갈의 기를 달고 항해했던 사람들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현대에 동반구와 서반구를 연결했던 이 유명한 이탈리아인의 역사적인 항해는 그가 포르투갈에 살면서 얻었던 지식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탈리아인이었던 이 지도 제작자는 포르투갈의 국기를 달고 항해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른) 아메리카는 섬이 아니라 대륙이었음을 밝혔다.

페르디난드 마젤란 —이 포르투갈 탐험가는 최초로 배로 남아메리카 남단에 있는 마젤란 해협을 돌아 세계 일주를 인도했다.

바르톨로뮤 디아스 —이 포르투갈 탐험가는 극동으로 가는 뱃길을 찾기 위해 최초로 유럽으로부터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돌아왔다.

바스코 다 가마 —그 역시 포르투갈 출신으로 디아스의 성공에 힘입어 최초로 배로 유럽에서 극동으로 가는 길을 개척했다.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 —이 포르투갈 탐험가는 오늘날 브라질이라고 부르는 곳에 포르투갈 식민지를 확고히 구축했다.

오늘날, 새로운 탐험가 세대가 포르투갈에 살고 있는 37,000명이 넘는 교회 회원들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다. 포르투갈 리스본 선교부는 1974년 11월에 브라질에서 이동한 네 명의 선교사로 조직되었다.

포르투갈 포르토 선교부는 1987년에 조직되었고, 케이프 베르데 프라이아 선교부는 2002년에 조직되었으며, 아조레스 군도와 마데이라 제도 및 포르투갈 자치령을 담당하고 있다. 아 나라의 6개 스테이크 중 최초의 스테이크인 포르투갈 리스본 스테이크는 1981년 6월에 조직되었다.

독수리

날개 위에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실용적인 기계를 위해서는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 상승력을 만들어 내는 날개, 비행기를 높이 띄우기 위한 엔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원리와 요건이 영생을 향한 여러분의 생의 여정에도 적용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19 03년 12월 17일, 윌버와 오빌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조종 가능한 동력 비행기를 만듦으로써 인류의 꿈이 한 가지 실현되었습니다. 비행 거리는 약 37미터로 747 점보 제트기 길이의 약 절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행 시간도 약 12초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747기 조종석에 이르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오늘날의 표준에 비하면 매우 짧은 비행이었지만 언젠가 비행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당시로서는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윌버와 오빌 두 형제에게는 교육과 종교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 형제는 둘 다 위대한 병을 여러 번 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면서 고통과 번민과 절망까지 겪었습니다. 그들은 인쇄업, 자전거 수리업 및 제조업, 마침내는 항공기 발명까지 여러 일에 손을 댔습니다. 평생에 걸쳐 그들은 한 가지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 일에 열중했고 한 팀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해 보지

않았던 일을

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앞서 갔던 사람들이

이룬 업적의 가치를 알고 그에 대해 배울 만큼

겸손하고 현명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나는 실용적인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날개는 상승력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비행기를 높이 띄우기

위해서는 엔진으로 동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¹

성경: 데리버드 미클; 역사적인 사진: 인화; 도서권 인쇄 및 사진복 개본;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스와 윌슨 시, 엔지니어, 단원이 조종을 취함



그들은 목표를 세웠고, 하루 하루 헌신을 다해 일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을 향해 가는 사람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²

이와 유사한 원리와 요건이 영생을 향한 여러분의 생의 여정에도 적용됩니다. 독수리의 날개 위에 타기 위해 준비하며 여러분은 신성한 원리들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의 삶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움직이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1895~1985년)은 어떤 무명 작가가 한 다음 말씀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전쟁은 조용한 영혼의 방에서 일어난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느끼는

독수리의 날개 위에 타기 위해 준비하며 여러분은 신성한 원리들을 배워야 합니다.

승리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얻은 수백 번의 승리에 필적한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태를 통제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네 자신을 알라. 성품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자제력이다.”³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권고에 따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진정한 극기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령의 속삭임에 따르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의 양심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 대한 자제를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아, 정신, 육신, 영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순화시키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화**는 여러분을 바로 **위험**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자제력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지시와 통제에 기반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여러분을 영원한 목적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도덕적 깨끗함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십시오. 유혹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⁴

마우스 클릭 또는 리모콘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 무엇이 들어오게 할 것인지 현명하게 통제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독서 자료, 영화, TV쇼 그리고 어떤 종류의 오락이든, 불건전한 욕망보다는 유익하며 정신을 고양하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자신의 태도가 자신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결정한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외에도 비행기를 공중에 떠 있게 하기 위해 충분한 상승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전에는 상승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 새로운 수위나 고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힘; 중력에 저항하여 위쪽을 향해 작용하는 힘.

시편 작가는 목표를 한층 높게 설정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리리보나이다.”(시편 25:1) 그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시편 121:1) 그분은 여러분에게 병아리들과 함께 땅을 파지 말고 독수리들과 함께 하늘을 날도록 권고하십니다.

천상의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성을 교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아들, 그리고 성신과 일치되는 생활을 하려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또한 참으로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모사이야서 3:19) 하는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 올바른 태도-덧붙여 말하자면 이것은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충분한 상승력을 생성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역주: attitude, 즉 “태도”를 뜻하는 이 단어는 “비행 자세”라는 의미도 됨)-를 가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단지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정 너머까지 전해지는 기도, 진부한 반복으로 가득 차지 않으며,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으로 드린 기도라면 언제든지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니파이는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일진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임이라. 이는 악한 영은 ...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침이니라.”(니파이후서 32:8)

해롤드 비 리 회장님(1899~1973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의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는 누구에게든 그가 의롭게 구하는 것에 대해 거룩한 지혜와 힘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⁵

순종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장해 줍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한1서 3:22)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1년 커틀랜드에서 받은 다음 계시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영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나니, 그런즉 그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니라.”(교리와 성약 46:30)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분에게는 지혜와 우주의 지고하신 궁핍의 근원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하고 유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단순하지만 힘 있고 진심 어린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더 높은 영적인 위치로 끌어올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약점을 고백하고 필요 사항을 간구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헌신을 보이십시오.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더욱 큰 영감과 계시, 그리고 독선(self-righteousness)이 아닌 의로움(righteousness)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광채를 비추게 하는 영적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 기장으로 일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둡고 비 내리는 공항에서 출발해 겨울의 짙고 험악한 구름을 헤치며 상승하다가 갑자기 구름을 뚫고 밝은 태양과 끝없는 푸른 창공으로 높이, 가파르게 치솟고 나면, 나는 자유롭게 안전하며

고 지역학에서는 중력과 저항은 상승력에 반대로 작용합니다. 이와 동일한 중요한 원리가 태초로부터 구원의 원리의 중요한 원리가 되어 왔습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느낌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것과 선택의지.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역학에서는 중력과 저항이 상승력에 반대로 작용합니다. 이와 동일한 중요한 원리가 태초로부터 구원의 원리의 중요한 원리가 되어 왔습니다. 리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니파이후서 2:11) 그리고 천사는 베냐민 왕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 ... 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모사이야서3:19)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큰 은사, 즉 선택의지로 이끕니다.

리하이는 그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하시었나니 ...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니파이후서 2:16, 27)

여러분에게는 선택의지가 있으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 없는 선택의지란 것은 없습니다. 선택의지에는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인간의 선택의지는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이 진심 어린 회개를 조건으로 죄의 결과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전인류를 위한 구주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 그리고 이에 의해, 모든 사람은 타락에서 구속되었으며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니파이후서 2: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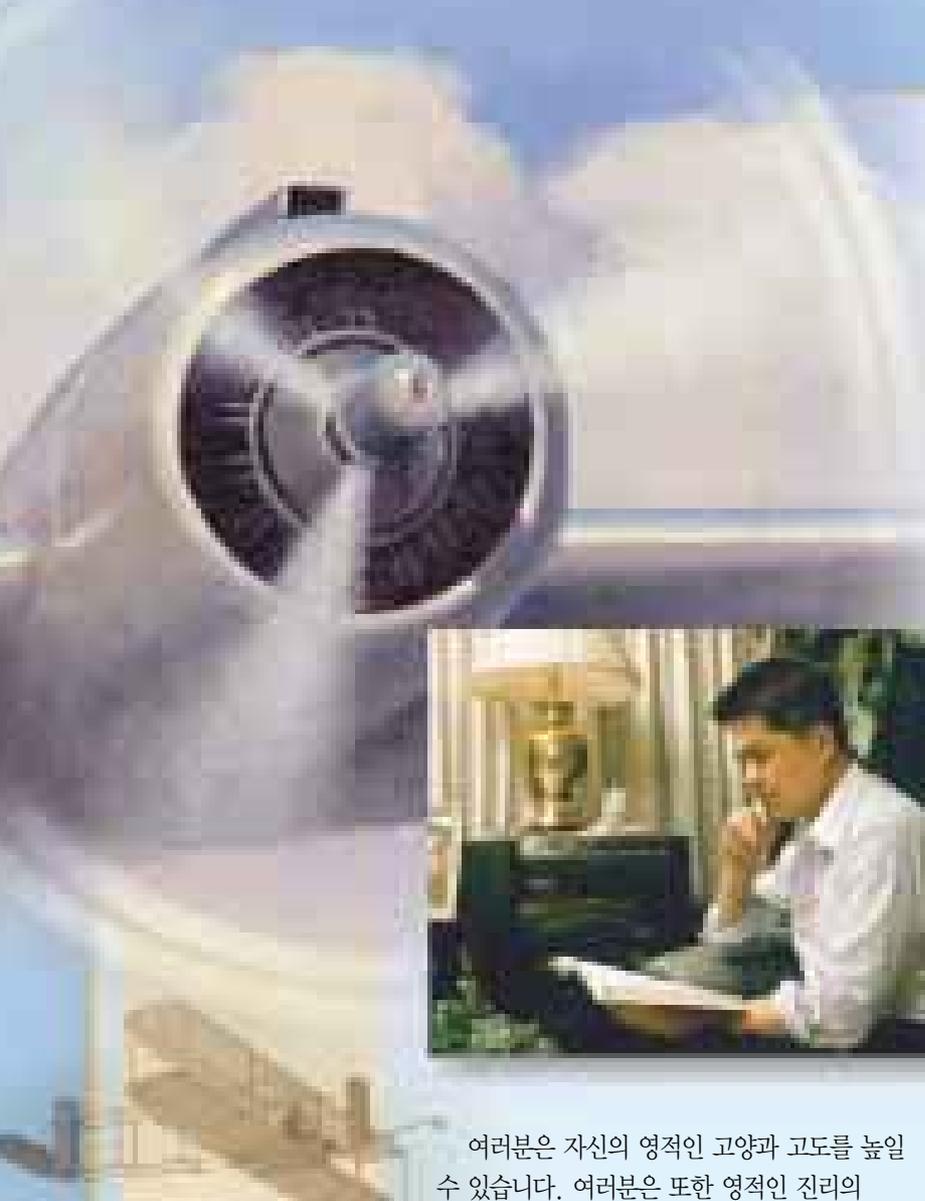
선택의지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선택의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지는 여러분의 생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이나 반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생애 동안 여러분은 중립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선택의지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행기
기장으로서
구름을 뚫고
밝은 태양과 끝없는 푸른
창공으로 높이, 가파르게
치솟고 나면, 자유롭게
안전하며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느낌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매일
 언제든지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패스트푸드
 서비스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집으로 가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고



권고했습니다.(제3니파이 17:3)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명상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니파이후서 25:26)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직업 윤리와 남에게
 봉사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열의를 높여
 주는, 하늘을 지향하는 태도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이
 아닌,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교회 책임을 수행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태도를 갖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서 봉사하는가보다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모사이야서 2:17) 그리고 우리는
 “피곤한 손 ... 을 일으켜 세”(히브리서
 12:12)움으로써 이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인 고양과 고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영적인 진리의
 주요한 다른 근원,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속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흡족히 취함. 여러분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같이 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경전
 또는 선지자의 말씀을 가끔씩 읽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니파이후서
 31:20)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흡족히 취한다는 것은 탐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전이 마치 여러분을
 위해 쓰여진 것처럼 읽으십시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은 니파이가 말한 바와 같이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니파이후서
 32:3)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강력한 구절인 야고보서 1장
 5절은 만물의 회복으로 인도했던 놀라운 과정의

**셋째: 거룩한 권능의 참된 근원을 찾고 신뢰해야
 한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 엔진의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비행을
 가능하게 해 줄 상승력도 추진력도 없었을 것이며,
 결국 비행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참된 힘의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며, 이

세 행기가 날기
 위해 엔진의
 동력이
 필요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을 들어 올리고
 창조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참된
 힘의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은은하고 사랑이 깃든 영향력을 행사하여 여러분을 들어 올려 높이 떠 있게 해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신, 그리고 성신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보혜사(comforter)의 라틴어 어원은 *com fortis*로, “함께 강해짐”이라는 뜻입니다. 성신이 여러분의 영을 방문하면,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성신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힘과 권능과 평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신과 성신의 은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넬로는 침례를 받기 전에 복음의 진실성을 확인시켜 주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성신을 받았지만, 침례를 받기 전에는 성신의 은사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넬로가 이 표적, 즉 의식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시켜 주는 성신은 그에게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가 이 의식들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반자에 따라 안수례에 의해 성신의 은사를 받기까지, 그는 병자를 고칠 수 없었을 것이고, 악령에게 명하여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⁶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팔리 피 프랫 장로님(1807~1857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신은 “덕성과 친절과 선함과 부드러운함과 우순함과 자애를 불러 일으킵니다. 사람의 자세와 용모를 아름답게 해 줍니다. 또한 건강과 활력과 생기와 사회성을 증진시켜 줍니다. 성신은 원기와 신체적,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신경을 강화시키며, 활기를 불어넣고 강건함을 줍니다. 즉, 성신은 … 뼈에는 골수, 마음에는 기쁨, 눈에는 빛, 귀에는 음악, 존재에는 생명인 것입니다.”⁷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1897~1988년)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것을 배운다면, 인생의 모든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느낌보다는 성신의 속삭임에 따르도록 자신을 훈련시킨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런 후 그 결정에 대해 그분께 단순하고 정직하게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저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결정이 옳다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 여러분이 영의 인도에 따라 생활한다면, 결코 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⁸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영의 속삭임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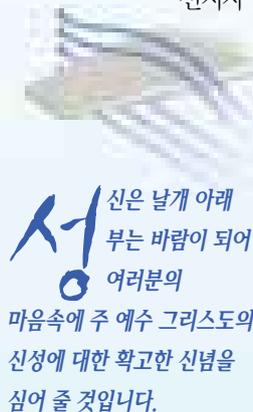
성신은 여러분에게 자율성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신을 한결같은 동반자로 삼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 외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이 자신을 통제하고, 태도를 향상시키고, 영적인 고도를 높이고, 거룩한 권능의 참된 근원을 찾고 그것을 신뢰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날개 아래 부는 바람

비행기의 비행에 대한 비유를 한 번 더 사용하자면, 비행기를 안전하게 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날개 아래 부는 바람”이라고 부르곤 했던 것입니다. 이 바람이 없이는 뜰 수도 올라갈 수도 없으며, 푸른 창공이나 저 먼 아름다운 목적지로 날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의 날개 아래 부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그분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 줄 것입니다. 성신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 계획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자신만의 거룩하고 영원한 목적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로 자신을 돌이킬 것이며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

2003년 11월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행한 말씀에서 발췌.



주

1. Tom D. Crouch, *The Bishop's Boys: A Life of Wilbur and Orville Wright* (1989년), 166쪽 참조.
2. *The Notebooks of Leonardo da Vinci*, ed. Irma A. Richter (1980년), 261쪽.
3. *용서가 낳는 기적*, 215쪽.
4. *Nicomachean Ethics*, trans. W. D. Ross, 제3권 5장 (인터넷, <http://classics.mit.edu/Aristotle/nicomachaen.3.iii.h> tml 참조).
5. *Stand Ye in Holy Places* (1974년), 318쪽
6. *History of the Church*, 4:555.
7. *Key to the Science of Theology*, 제9판.(1965년), 101쪽.
8. In Conference Report, 1961년 10월, 60~61쪽.
9. *History of the Church*, 3:381.

의인의 노래

회원들이 어려운 시기에 찬송가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화평과 용기를 주었는지 서로 이야기한다.

광야에서의 신앙의 기초

콩고의 1998년과 1999년은 슬픈 일이 많았던 시기였다. 나는 전쟁 때문에 살던 마을을 빠져나와 우리 마을에서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7개월이 넘도록 광야를 여행했다.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매일 저녁 우리 일행은 함께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렀고, 한 명씩 돌아가며 찬송가를 추천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굳도다 그 기초(35장)”를 부르자고 제안했다. 나 외에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이 노래가 바로 우리의 걱정과 대한 해답을 준다고 느꼈다.

나는 그 7개월 동안 몇 번이고 “굳도다 그 기초”를 불렀다. 광야에서 병과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외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는 순간에도 이 노래는 나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혼자 불렀지만 이 노래의 가사와 곡이 다른 사람들의 귀와 마음속으로도 파고들었다. “병드나 성하나 어느 때든지 / 부하나 빈곤에서 허덕일 때나 / 집에서나 외국 어느 곳에서나/ 도움을 구할 때 도와주시리” 이 가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다.

우리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 나라 어느 교회의 지도자였다. 마을로 돌아갔을 때, 이 형제는 복음에 관해 더 알고 싶다고 했고, 나는 모사이야서 18장(8~10절 참조)에서 얼마나 보인 모범에 따라 그의 부탁에 응했다. 결국 그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찬송가 “굳도다 그 기초”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나의 영혼을 적서 주었고 큰 기쁨과 위안을 주었으며, 오늘날 한 훌륭한 형제가 교회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어 나를 더욱 기쁘게 해 주는 노래이다.

티에리 알렉시스 토코, 콩고 공화국



내 영혼을 위로해 주는 찬송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성스러운 찬송가는 내 마음에 화평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실제로 침례 받기 오래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부모님은 내가 18세가 되어 법적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걱정해 주신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힘든 상황이었다. 나는 경전을 공부하고, 가정의 밤을 갖고, 서로 간증을 나누는 그러한 후기 성도 가정을 갖는 것이 꿈이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차를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 나를 놀리는 대신 나의 청년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기를 원했고, 아버지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광신적인 것이 아니라 진지한 것임을 아시기를 원했다. 나는 비난을 견디면서 그 시련이 내 신앙에 대한 하나의 시험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좌절하고 지친 상태에서 나는 18세가 되기까지 43일밖에 남지 않은 날,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다. 나는 낮익은 얼굴들로 가득 찬 대회장에 앉자마자 영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나의 안식처를 찾았다. 영적인 말씀 중간에 전임 선교사들이 “서로 사랑해”(찬송가, 193장)를 영어로, 그리고 중국어로 불렀다. 나는 영어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아는 선교사도 거의 없었지만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찬송가는 회원들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듯했다. 교회에 있는 동안 나는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었다.

이제 나는 교회 회원이지만 여전히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 그러나 울적하고 외로울 때는 찬송가를 부르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위안을 얻는다. 찬송가는 내 마음의 갈증을 해소해 주고 굶주린 영혼을 채워 준다. 지쳤을 때 평안을 주고 앞으로 나아가 용기를 준다. 찬송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웬 슈안 웨이, 타이완

나를 침례로 인도한 찬송가

2000년 10월 28일, 나는 후기 성도 집회소 뒤쪽의 한 집으로 이사 왔다. 그날 밤 물건들을 정리하던 도중, 나는 집회소 안에서 어떤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시간에 그렇게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것에 익숙하지 않던 나는 처음에는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때 교회에서 한 여자가 와서 그날 저녁 활동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다른 교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초대를 거절하고

내 믿음에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활동을 하는 동안 교회 회원들이 부르는 찬송가 소리가 들렸고, 그 음악이 매우 아름답게 느껴졌다.

나는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 교회에 갔지만, 집에 왔을 때 그 집회소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고, 다시 찬송가 소리를 들었다. 그 음악은 정말 아름다웠고, 무엇인가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오후에도 다시 교회에 왔다. 이번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그들의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노래하는 동안 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나는 마음속에 특별한 그 무엇, 즉 큰 평안을 느꼈다. 나는 그들을 좀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정원으로 나가고 싶었다. 나는 감정에 북받쳐 울기 시작했다.

나는 딸과 함께 밖으로 걸어 나갔다. 교회에서 나온 한 신사가 나를 보더니 침례식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참석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딸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딸은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도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딸도 결국 따라왔고, 우리는 침례식에 참석했다. 나는 감동을 받았으며, 영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꼈다. 2000년 12월 10일, 딸과 나는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찬송가들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다. 예전에 나는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행복하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사랑을 표현하는 찬송가들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한 찬송가들은 나를 침례로 인도했다.

카르멜린다 페레이라 다 실바, 브라질

하나님의 자녀

한국 서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갔 이동했을 때였다. 수백만의 사람들로 북적대는 그 도시를 나는 여전히 감당할 수 없었으며 나의 한국어 실력은 형편없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동반자와 나는 수년간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한 회원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다.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녀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히 위로가 필요했다. 우리는 그 자매의 집을 방문했지만, 나는 대화의 많은 부분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든 나는 처음에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안 좋은 상태에 있었지만 나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하자 그것이 우리가

최근에 만났던 저활동 자매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는 그 자매가 하는 말을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외롭다는 것을 느꼈고,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 얘기를 해 줄 수 있을까? 영어로도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는데, 더더구나 한국어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문득 나는 내가 찬송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의 한국어 가사를 외웠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 자매가 말을 마치자, 나는 찬송가를 함께 부를 수 있을지 천천히 물어보았다. 그녀는 좋다고 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평안과 위로의 놀라운 느낌을 받았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둘 다 안아 주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았다.

노래가 끝나자 그 자매는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서로 잘 자라는 인사를 했다. 나는 마음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영에 놀라며 침실로 돌아갔다. 어두운 밤, 하나님의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언제나 응답해 주시기 위해 그곳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 나는 너무나 감사했다.

다이앤다 스미스, 미국 유타

어려웠던 시기의 평안의 영

우리 가족은 1977년, 내가 11살이었을 때 교회에 들어왔다. 그 당시 우리 조국 엘살바도르에는 격렬한 내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세는 심각했고 국군과 반군 사이에 끊임없는 무력 대결이 있었으므로 정부는 오후 6시에 모든 시민에 대해 통행 금지를 실시해야만 했다. 집회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도 없었고, 우리는 국군과 반군 모두에게서 위협을 느꼈다.

이런 일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만 있다면 어느 곳으로든 이민을 떠날 방도를 찾고 있었다. 우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을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생각에서 베네수엘라에서의 직장 제의를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한동안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쟁은 교회에도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아버지가 타셨던 베네수엘라 행 항공기에는 마지막으로 엘살바도르를 떠나는



15명의 선교사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의미했다.

1979년 말에 우리와 다른 교회 회원들, 특히 젊은이들은 스스로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작은 합창단을 조성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았다.

한편, 우리는 위험 가운데서 사는 것을 배웠다. 전투나 폭탄 투하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바닥에 엎드려 곧 끝나기를 바라며 기다렸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트리스를 덮어 주셨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준 것은 찬송가였다. 바닥에 엎드려서도 우리는 찬송가 책을 손에 들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16장) “굳도다 그 기초”(찬송가, 35장), “요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찬송가,

24장), “높은 산 언덕 위”(찬송가, 2 장), “오 높은 영광 보좌”(찬송가, 139장),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찬송가, 111장), 그리고 그 외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던 많은 찬송가를 부르도록 격려했다.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로 인해 울기도 했지만,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그와 같은 끔찍한 상황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우리를 베네수엘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함께 살아 있도록 지켜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찬송가가 어려운 시기에 평안의 영을 불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아나 콜로리아 에르난데스 데 아브수엘라, 베네수엘라



상호 지지



여러분 없이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성 84:110 참조)

가족을 강화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오는 축복:

상호부조회는 검소한 생활, 현명한 가정
관리, 그리고 각 자매들이 그들의 유산을
존중하도록 돕기 위해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보니 디 파킨,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저는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새로워지고, 강화되었으며, 더 좋은 엄마와
아내와 하나님의 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음에 대한
이해력과 구주의 사랑, 그분이 저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해 넓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상호부조회에
가십시오. 그것은 가정을 사랑과 자비로
채워 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양육하고 강화해 줄 것입니다.”
("상호부조회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리야호나, 2004년 11월,
35쪽)

현명한 가정 관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강화하는가?

교성 93:43, 50: “네 자신의 집에
질서를 세울지니라 ... [너희가]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잠언 31:10, 13, 25, 27: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느니라 ...”

“...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지출할 일이 있을
때, 검소하게 쓰시고, 가능한 한 빛은
피하시고, 빛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서 빛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권고합니다.

“... 빛을 모두 갚고 난 뒤, 비록 적은
액수라도 저축해 놓은 돈이 있다면, 그
때에는 모진 풍파가 여러분의 머리에
몰아쳐도 ... 여러분은 보호막을 갖게 될
것이며, 마음에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4쪽)

성전 예배와 가족 역사 사업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강화시키는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1899~1994년): “성전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영원한 것이 되게 하실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
신권의 가장 높은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 성전에 가십시오. ...

“... 성전에 참석하여 주님의 집에 관한
의식을 행할 때, 모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의 영을 받을 것이며,
이 영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조상들에게
돌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을 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What I
Hope You Will Teach Your Children

about the Temple”, *Tambuli*, 1985년
4~5월, 2, 6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1907~1995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을 방문하십시오. 성전 사진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두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집의
목적 가르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어릴 때부터 하도록
하며 ...

“... 가족 역사 자료를 모아 조상들이
성전에서만 수행되는 거룩한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름을 준비하십시오. 계보
사업은 성전 의식을 받는 데
필수적인 것이며,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빛*,
1995년 1월, 8쪽) ■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비를 맞으며

나는 친구들에게 선교 사업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런데
나는 왜 불행한 것이었을까?

카다리나 베츠 버치

“선교 사업이 이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왜 말해 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선교사 훈련원 교사, 뉴먼 장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20년 전 선교 임지에 도착한 나는 선교 사업이 힘들었고 하기가 싫었다. 나는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선교 사업을 계속 하기는 했지만 그 18개월이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는 누구에게도 말할 마음이 없었다.

뉴먼 장로에게서 답장이 왔다. “베츠 자매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유감이에요. 실은 브래포드 장로와 제가 말해 드리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지만 믿으려는 사람이 없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자매님이 귀환할 무렵에는, 선교 사업을 한 것을 기뻐하게 될 거랍니다.”

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선교사로 나오기를 원하셨음을 확신했고, 선교사로 봉사하려는 결심으로 그분께 나아갔을 때 내가 느꼈던 영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내 친구들 대부분은 선교 사업을 마쳤거나 봉사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은 내게는 없는, 복음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듯했다. 나의 선교사 친구들은 하나같이 복음을 통해 삶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이 매일 보았던 기적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 주었다.

친구들은 모두 선교 사업이 자신이 한 일 중 가장 훌륭한 일이었다고 말했고, 그들의 경험은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독일 북부에서 시차로 고생하고 있었고, 선임 동반자는 나와 마찬가지로 선교 사업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6월의 날씨는 서늘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두 차례씩은 비에 흠뻑 젖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진흙탕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우리는 독일 북부의 몇 안 되는 높은 언덕 한 꼭대기에 살았으며, 우리 구도자들도 모두 다른 언덕 꼭대기에 사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가장 낙담스러운 점은 내가 아직 성령의 미세한 영향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선교사로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독일에서 지낸 지 채 2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국은 뉴먼 장로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점차 나아졌다. 어려운 일들은 그대로였지만, 나는 좋은 순간들을 인식하고 즐길 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지역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여행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는 기차를 바꿔 타고 한 여성과 프라이베르크에 있는 새로운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몰두해 있었는데, 그러던 도중 나는 기차가 우리가 가야 할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우리는 기차를 잘못 탔다는 것을 깨닫고는 급히



뛰어내렸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는 기차가 오려면 두 시간이나 남았고, 그 후 갈아타야 할 기차는 더욱 늦어질 것이었다. 그 기차역에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받은 지 얼마 안 된 **앤사인**에 실린, 당시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이었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의 기사 “예기치 않은 메시아”를 읽었는데, 그분의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해 주어진 것 같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과 관련된 일에 대해 인쇄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제 삶과 달랐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 선교 사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

“... 특별히 부름 받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아주 조용하고 평범한 방법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 위해 노력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 애쓸 때, 여러분의 시간, 또한 편의를 투자할 때, 조용하고 겸손한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은 진실로 [그분이]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마태복음 4:6)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속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속히 일어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짐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통해 여러분과 대화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그 짐을 잘 짊어진다면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사업을 이루실 것입니다.”(Tambuli, 1989년 3월, 23쪽; *Ensign*, 1984년 2월, 70쪽)

선교 임지에서 얻은 경험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 쓸쓸한 기차역에서 영은 나에게 강하고 통찰력 있으며 위로를 가져다 준 증언을 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점점 어두워질 무렵 구블러 자매와 나는 큰 아파트 건물에서 전도하고 있었다. 한 나이 든 여인이 우리를 아파트로 초대했을 때 우리는 약간 놀랐지만 그녀의 마음에 상처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우리가 그녀의 어두워진 방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는 남편의 죽음과 의붓자식들의 냉대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실히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에게 성경을 달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을 읽어 주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9~30) 그 방 안에 영이 들어왔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고, 나는



동반자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녀의 슬픔을 알고 계시며 그녀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간증했다. 이 짧은 귀중한 순간에 적어도 한 명의 돌이킴이 있었다. 바로 내 자신이었다.

나는 내 사고방식이 점점 변화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여전히 고향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들었고, 비에 젖고 바람맞고 무시당했으며, 어깨에 멘 가방은 점점 무거워졌고, 옷은 매일 조금씩 더 낡아 갔다.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야 할 나의 책임은 때때로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나 가시 돋친 말의 쓰는 아픔이 점점 무디어지고, 고통과 아픔의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나의 간증이 커 감에 따라 삶은 점점 밝아졌다. 나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고,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웨라는 젊고 이상주의적인 환경론자가 있었는데 그는 구원의 계획을 듣고 그 메시지가 참됨을 알았다. 그는 가죽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긴 다리는 예배당의 의자에는 맞지 않았지만 그는 우리의 초대에 응하여 일요일에 8 킬로미터의 길을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와 주었다. 그가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그의 마음 속에 임하는 평안을 느꼈고 그의 얼굴빛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

한 의사 부부는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 대해 논쟁을 하고자 했지만 어째서인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이 글루크스타트에 있는 지부의 일요일 모임과 지부 활동에 참석하도록 기꺼이 허락했다.

어느 날 새로운 동반자인 뉴먼 자매와 내가 젊고 귀여운 한 여성을 가르치고 있던 중 그녀의 남자 친구 톰이 그녀를 만나러 왔다. 그 전에 그녀는 남자 친구가 그녀가 우리와 계속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귀뜸해 주었었다. 톰은 집 앞에 세워 둔 자전거를 보고 우리가 그날 아침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떠나갈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기다리는 동안 호기심이 점점 커지게 된 그는 우리에게 물어볼 질문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결국 그의 관심은 의심하는 마음보다 커졌고 그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왔다. 복음의 기본 원리와 배도와 회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우리는 다음날 저녁 그를 가르칠 약속을 정했다. 그로부터 10주 후, 그는 침례를 받았다.

나는 너무나 기뻐기 때문에, 할 수만 있었다면 10년 동안 다시 선교사로 봉사했을 것이다.

자매인 아스트리드와 제니퍼는 선교사들이 그들을 찾기 전에 먼저 교회를 찾았다. 제니퍼는 학교의 종교 수업 중 교회에 대해 듣고 관심을 갖게 되어 몇 가지 조사를 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일어로 된 물문경과 윌리엄 이 베렛이 쓴 *회복된 교회*를 찾아서 아스트리드와 함께 읽었다. 둘은 이 “미국” 교회를 찾을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도 브레멘 전화번호부를 찾아보았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마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란 그들은 기뻐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묻는 편지를 썼다. 물론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도왔다.

오히러 가족과 칼더웨이스 가족, 시리스코 부인, 랜지 씨, 토트 씨 및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잠시 동안, 때로는 오랫동안 우리와 이야기했고 귀를 기울였으며, 우리는 간증을 나누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다. 나는 이 생에서는 그 씨앗의 대부분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없겠지만, 클라센 가족은 내가 그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침례를 받았다. 마흔케 부인은 내가 선교사로서 해임되고 나서 오랜 후에 간증을 얻어 교회에 들어왔다.

뉴먼 장로가 옳았다. 내가 독일을 떠날 무렵, 나의 가슴은 영적인 감명은 물론이고 사람들, 사상, 전통, 관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넓어졌다.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한때 타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위해 고통을 겪는 것을 배웠다.

귀환 후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 나는 비록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선교 사업은 때때로 어려울 것임을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나 역시 그들이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

“여러분의 영적인 집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집들을
통해 여러분과 대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쓸쓸한
기차역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영은 내게 그
진리를 증거해 주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독특한 교리에
대해 살펴보는 연재 기사.

고 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섬,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하여 회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웃 섬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성전에 가라고 권고하셨다. 나는
그렇게 했으며 성전 안에서 귀환 선교사와 영원한 결혼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논의해 왔다. 오랜 세월 동안 개괄적으로 세 가지 철학,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근본적으로 악하며, (무엇이든 기록될
수 있는 백지와 같은)중립적인 존재라는 철학이 우세했다. 회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참된 본성을 알려 주고 “육에 속한
사람”(모사이아서 3:19)을 벗으려는 인생의 과제에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중적인 본성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백성이 되었다.”(앨마서 12:22) 베냐민 왕은 타락한 백성
혹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 … 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모사이아서 3:19)고 가르쳤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1873~1970년)은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이중적인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가르쳤다. “하나
는 지상의 삶, 또는 동물적인 삶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가까운 본성입니다. 사람이 이른바 동물의 세계에서
만족한 채 식욕과 욕정에 쉽게 굴복하고 점차 방종하게 되느냐,
아니면 절제를 통하여 지적, 도덕적,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느냐는
그가 인생에서 매일, 매시간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¹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왔으며, “모든 사람의 영은
태초에 무죄하였”다.(교리와 성약 93:38) 우리의 육신도



육체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데는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이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오고 싶어 했던 한 가지 이유는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필멸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돌보며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육체가 지닌 선천적인 성향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맥케이 회장이 설명한 영적인 삶을 향해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배하게 할 경우,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적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모사이야서 3:19 참조)

전투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우리의 적이 시도하는 모든 공격은 육신을 통해 올 것입니다. 이는 육신이 아직 구속 받지 못한 흠으로 빚어졌으며 그는 지상에 있는 원소들을 지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육신의 욕망, 식욕 및 야망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투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움은 이 필멸의 육신 가운데 거하는 영을 통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이 두 가지 권세는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강한 영을 갖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영이 영적인 음식을 취하고 영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적인 음식도 취하지 않고 영적인 운동도 하지 않는 남자 또는 여자는 곧 영적으로 허약해질 것이며, 육신이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음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육신을 통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할 것입니다.”²

벨라드 장로는 영적인 음식과 운동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기도, 성찬을 취함, 그리고 서로에게 봉사함. 또한 경전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안식일 모임

참석, 성전 봉사, 경전 공부 등이다.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킴

영적인 음식과 운동은 육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 우리를 강화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육신이 그 타락한, 또는 “육적인” 상태로부터 성결하게 될 때 훨씬 더 쉬워진다. 이 성결함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랫(1807~1857년)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성신의 은사는 ... 모든 지적인 능력을 일깨우며, 모든 천성적인 열정과 사랑을 증대시키고 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품을 지혜의 선물을 통해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해 줍니다.”³ 열정은 선천적으로 사악한 것이 아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정은 위대한 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욕구에 스스로를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구주의 속죄와 선택의지의 올바른 행사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1899~1994년)은 세상은 “인간의 행위를 조절하려고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쳤다.⁴ 참으로 베드로가 선언한 바와 같이, 주님의 권세로 우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베드로후서 1:3~4 참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고 성도가 되며,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모사이야서 3:19) 될 수 있다. ■

주

1. *Gospel Ideals* (1953), 347~48.
2. “The Struggle for the Soul,” *Tambuli*, 1984년 9월, 37쪽.
3. *Key to the Science of Theology*, 제9판.(1965년), 101쪽.
4. “하나님계로 태어남”,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쪽.

원문: 사진 촬영: © GETTY IMAGES; 오른쪽, 사진 촬영: 허버트 크로니너, 모델: 모즈를 취함

평화의 땅이 되어 가는 캄보디아



1994년, 캄보디아는 복음 선교사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으며, 현재 6,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선교사업을 돕고 있다.

마리사 에이 위디슨
교회 잡지

1994년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한 이래로, 신앙과 용기와 개종의 이야기들은 이 나라의 개척자들의 유산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아시아의 이 열대 나라에서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일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고 있다.

1994년 도날드 돕슨 장로와 살렌 돕슨 자매는 인도에서 봉사하던 도중 캄보디아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이동 발령을 받았다. 그 해 3월 27일, 최초의 교회 모임이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열렸고, 참석 인원은 회원 6명에 구도자가 9명이었다. 1994년 5월 9일, 팔 마오 자매가 캄보디아에서 침례를 받은 최초의 회원이 되었다. 2년 후인 1996년 5월에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메콩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서 그곳을 복음 전파 지역으로 헌납했다. [선교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도움을 줌: 인도주의적 지원

1993년 태국 방콕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래리 알 화이트 형제는 캄보디아에서 종교적인 개방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낭보를 받았다. 그는 정부 대표들에게 선교 사업 개시와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칠십인 정원회의 존 케이 카먹 장로와 방콕의 교회 회원인 비치트 이스 형제와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했다.

그 이후로 많은 인도주의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봉사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최근에는 로버트 솔스 장로와 버지니아 솔스 자매가 교회가 후원하는 인도주의 단체인 후기 성도 자선회의 국가 책임자로 봉사했다. 이 조직은 전세계에서 빈곤층 구제를 위해 일하며 종종 지역 정부나 시민 단체들과 연계하여 봉사하고 있다. 그들은 자선 봉사의 힘이 장벽을 허물고 정치적 분열을 타개하며 교회의 이름에 신뢰감을 더해 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매년 500명 이상의 무고한 캄보디아 국민들이 잔류하는 지뢰에 의해 손발을 잃고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솔스 장로와 자매는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행동을 취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휠체어 재단 및 캄보디아 적십자사와 함께 “트리플 콤비네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지뢰 희생자들은 물론 신체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휠체어를 기증했다.



가족 역사: 공통의 가치관

전통적으로 조상을 숭배하는 문화에서, 교회의 계보 사업이 캄보디아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연로한 선교사인 마이클 프레임 장로와 도나 프레임 자매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가족 역사 세미나를 조직하고 가르쳤다. 후기 성도 자선회가 후원하고 인도주의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세미나에 지난 수년 간 수백 명의 남녀가 참여했다.

“폴포트 시절을 거친 많은 캄보디아인 생존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너무나 많은 기록들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도와서 그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그 기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계도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 주고 싶습니다.” 라고 프레임 자매는 말한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프놈펜 전역에서 몰려와 가족 역사 강의에 참석했으며, 그 대가로 가족 기록서 작성, 부모 및 조부모와의 인터뷰, 그들의 조상에 대한 중요하고 흥미 있는 정보 수집에 대해



반대쪽: 통근자들이 메콩 강 위의 다리를 건너고 있다. 후기 성도 회원들이 인형극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프놈펜 거리의 3륜 택시. 프놈펜의 후기 성도 집회소. 위쪽: 침례식을 위해 모인 가족과 선교사들. 메콩 강을 따라 서 있는 배.

배웠다. 여러 해 동안 정치적 혼란을 목격한 많은 이들이 미래의 세대를 위해 현재의 가족 정보를 보존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있다.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소달리스 산 자매와 레이첼 페이스
 자매. 영 분 후오크 형제. 체 삼 낭
 자매. 자매 선교사들과 그 외
 사람들이 프놈펜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후 정리를 돕고 있다.



캄보디아의 선교 사업

인도주의 선교사와 복음 선교사들 덕분에, 수천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캄보디아 프놈펜 선교부의 한 준비일에, 애리조나 주 메사 출신의 트렌트 닐슨 장로는 동료 선교사들이 축구 경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운동장 옆에는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선교사들의 경기가 그곳에 있던 몇몇 십대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닐슨 장로에게 와서 왜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이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이라고 설명했다. 그 청소년들은 그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 알고 싶어했다. 선교사들이 자비로 선교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놀랐다. 누가 자비를 들여 그런 일을 한단 말인가?

곧 십대들의 호기심은 날카로운 영적 질문으로 이어졌으며, 그들은 선교사의 메시지를 열중해 들었다. 축구장 잔디밭에서 닐슨 장로는 곧 10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가르치게 되었다.

그들 중 처음에 가장 반감을 갖고 있던 학생이 나중에는 가장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와 다른 청소년들이 물몬경을 달라고 부탁했다. 닐슨 장로는 호기심을 가진 각각의 청소년에게 주기에 충분한 물몬경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운동 중인 다른 선교사들의 가방을 찾아 보았다. 그 청소년들이 떠나기 전에 닐슨 장로는 그들에게 교회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자매들과 자국민 회원들

프놈펜에서는 최초의 자매 선교사들이 도착한 것을 그 지역 선교 사업이 크게 확장했다는 표시로 보고 경축했다. 2003년 8월 21일에 메건 존즈 자매, 키어스틴 다운닝 자매, 그리고 레이첼 페이스 자매가 수도에 도착했다. 이 자매들은 도착한 첫날 그 도시에서 가장 변화한 재래시장인 센트럴 마켓에서 전도를 했다. 그들은 약간 긴장했지만 그들의 동반자이자 최초의 캄보디아 자매 선교사들인 소콤 수온 자매, 몰리스 소운 자매, 그리고 소달리스 산 자매는 익숙한 지역에 대해 편안함을 느꼈다.



신앙으로 일함

“교회는 북미 이외 지역의 회원 수가 북미 지역의 회원 수를 앞지를 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160개국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국제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원대하며 신앙은 강합니다. ...

“저는 10년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좀 더 당당하게 서서,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주어진 원대한 복천년의 사명을 보다 잘 인식하고 이해 합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4~6쪽.

어떤 지역에 익숙하다는 것은 자국민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에 얼마나 큰 자산인가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자국민 선교사들은 또한 자국에서 봉사하는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를 가든 타인에게 전해지는 열의에 찬 영을 지니고 있다.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제가 선교 사업을 정말로 사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1988년 10월 25일에 침례를 받은 캄보디아의 회원인 앤 분 후오크 형제는 말했다. 그는 2년 후 프놈펜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선교 사업이 제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했는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해 동안 저는 지도력 기술과 가르치는 기술을 체득하였고 어떻게 더 좋은 친구, 아들, 그리고 회원이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2002년 7월 17일에 귀환하고 나서, 후오크 장로는 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 일자리를 구했다. 그의 간증은 강화되었으며, 그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잘 준비되었음을 느꼈다.

“저는 주님이 제가 선교 사업을 하기에 너무 늦지 않도록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놓쳤더라면 참 애석했을 거예요.” 라고 그는 말한다.

자매와 장로들, 본토 출신 및 외국인 선교사들 덕분에 선교 사업은 매일 전진하고 있다.

신권의 권능으로 축복 받음

신권의 권능은 새로운 캄보디아 회원들이 복음 안에서 성숙해 가는데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영향력이 되고 있다. 삼 남 자매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 의학적 기적을 경험했다.

어느 이른 아침 삼 자매가 오토바이를 타고 일터로 가던 중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 그녀를 들이받아 인도로 세차게 쓰러뜨렸다. 그녀의 신원이 파악될 때까지 아무도 그녀를 옮기려 하지 않았으며, 의식이 겨우 반 정도 돌아온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거의 두 시간 동안이나 길에 누워 있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그녀의 상처를 살펴보고 난 뒤 오른쪽 다리뼈가 “여러 조각으로 으스러졌다”고 말했다. 의사는 즉시 무릎 위까지 다리를 절단하거나, 최선의 경우 뼈 조각들을 핀으로 고정시키고자 했다. 삼 자매의 가족은 몹시 낙심했고, 운 손 지부 회장과 연로한 부부 선교사인 라본 데이 장로와 마리안 데이 자매에게 전화를 했다. 이 지도자들은 의사에게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병원에 도착한 손 회장과 데이 장로는 그녀를 축복했다. 앞서 있었던 논쟁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잠시 수술을 미루는 데 동의했다. 새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본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다리에는 아무런 골절이나 쇼크의 흔적도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상해를 입은 부분은 파열된 근육과 그가 꺾매 놓은 찢긴 상처뿐이었다. 의사는 삼 자매의 상태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었다.

약간의 추가 수술과 피부 이식으로 삼 자매는 다시금 다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 평화로운 삶을 향하여

캄보디아는 작은 나라지만, 국민들에게서 위대한 영을 발견할 수 있다. 선교사와 캄보디아 성도들은 한때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이 지역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미래의 세대가 복음 안에서 번성하도록 길을 닦고 있다. ■

죄의 사슬을 끊음



욕망이나 열정의 대상을 희생하는 것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열쇠입니다.

에이치 로스 위크맨 장로
철심인 정원희

노에 제도라는 사악한 관습은 세계 역사를 통해 여러 문명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상품으로 매매되고, 타인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극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에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성”이라는 설명에 몸을 움츠리게 되고, 심지어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 아직도 노예가 존재하고 있다는 보고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오로지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니파이후서 2:27) 하는 것이 목적인 주인에 의해 속박 당하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영적인 속박

많은 사람들이 속박이란 단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신체적 속박은 끔찍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구속은 거짓의 아버지께 속한 것으로서, 그 속박의 형태는 훨씬 더 참혹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적인 속박은 사람이 통제되지 않은 욕망과 열정에 자신을 내맡기는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로 옵니다. 사람은 죄를 짓거나 명성, 부, 정치적 권력, 혹은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세상의 영예를 추구할 때 속박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한 스포츠, 음악 혹은 유흥과 같은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써 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속박의 근원은 전통입니다. 전통은 모든 문화의 일부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족의 전통이 뿌리 깊게 존재합니다. 이 전통 가운데 일부는 훌륭하고, 문화를 존속시키며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다른 전통들은 복음과 신권의 다스림에 역행하며,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를 때 속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개인 및 가족의 전통조차도 영적인 속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에 상반되는 전통은 영을 거스르며, 그 전통을 따를 경우, 더욱 많은 자유를 부여해 줄 의로운 선택을 인식하도록 영의 인도를 받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관한 가족의 전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요한 스포츠 행사가 교회의 책임과 겹칠 때 여러분의 가족은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의롭지 못한 영향력에 굴복하면 여러분의 자유는 줄어들고 속박의 위험은 커집니다.

한 번에 조금씩

“마땅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으며, 악마의 능력에 따라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니파이후서 2:27 참조) 우리에게는 무엇이든 원하는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나, 그 선택의 결과를 피할 자유는 없다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영적인 속박이 단 한 번의 선택이나 사건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유는 한



번에 조금씩 함락되어 결국은 그 자유를 되찾는 일이 불확실해지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제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접하게 된 외설물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신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만큼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유혹에 이끌려 몇 시간이고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서 좌절과 절망만을 가져다 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주인에 의해 쇠시슬에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컴퓨터 화면의 노예가 되겠다고 한순간에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영적인 속박이 단 한 번의 선택이나

사건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유는 한 번에 조금씩 함락되어 결국은 그 자유를 되찾는 일이 불확실해지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 님은 충실한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라, 그는 그것을 보기 전에 파괴적인 영상을 “이번 한 번만” 보는 것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여러 번이 되면서 강력한 중독성은 그의 선택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중독의 사슬에 매인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가까이 속박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속박에 자신을 내맡길 경우,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자유가 점차 상실되어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속박을 경험하고, 선택하고, 혹은 허락할수록, 영적으로 중요한 일에서 우리가 느끼는 선택의 자유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속박이 그들의 통제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욕망이나 열정의 대상을 가까이 희생하는 의지에 의해 측정됩니다. 그러므로, 희생은 인도하는 원리이며 자신을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는 열쇠가 됩니다.

희생의 예: 부부 선교사

신체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허락되는 부부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희생할 것을 권고 받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재정적으로 부족하거나 기타 다른 상황은 분명 봉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봉사하지 않는 이유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의 포로가 되는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 자동차, 혹은 배에 대한 염려, 투자에 대한 집착, 여행 계획, 여름 별장에 대한 소망 및 이와 유사한 장애물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선택을 하기 위해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 속박을 당하기로 선택했습니까?

신앙심 깊은 한 부부가 내린 선택을 고려해 보십시오. 최근에 은퇴를 위해 농장을 구입한 후, 이 부부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개인적인 모든 필요 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고, 자전거로 전도를 했습니다. 생활 환경은 몹시 힘들었지만, 그들은 회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개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훌륭한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이 부부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가족으로부터 농장에 도둑이 들어 모든 농기구와 기계들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빨리 돌아와 필요한 재산들을 되찾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선교부 회장은 그들에게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이 부부는 어떤 결정을 할지 생각해 본 후, 그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에 의해 속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봉사하는 일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으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발람의 교훈

저는 속박과 자유에 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구약의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발람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인도하고 있던 당시 모압 변경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인 선지자였습니다. 시내 지방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마태복음 19:21)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개척자 성도들은 교회를 “모든 산

위에”(이사야 2:2) 세우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희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그의 설교에서 리하이이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너희를 묶고 있는 무서운 사슬을 떨쳐 버리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을 결박하는 사슬이니, 그들이 사로잡혀 비참과 고난의 영원한 심연으로 끌려 내려가느니라.”(니파이후서 1:13) 그의 말씀은 구주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한복음 8:34)

그렇다면 영적인 속박의 “사슬을 떨쳐” 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구주를 바라볼 때 그분은 자비로운 권능으로 우리의 힘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리는 모든 의로운 선택은 미래의 의로운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속박을 피하고 우리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늘 쉬운 과정은 아니며,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는 자의 불을 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박과 위대한 회개의 은사로 인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사야 1:18)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1~32)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원리들을 생활에 적용합시다. 속박에 굴복하기보다는, 의로운 선택을 하고 “[구주의] 말씀에 거”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

침입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람은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발람은 이 문제에 대해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민수기 22:12)

발람이 주님의 응답을 알렸을 때, 왕의 신하들은 엄청난 부와 세속적인 영예를 선물로 주겠다는 점점 더 큰 약속으로 발람을 유혹했습니다. 처음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거절하자 모압 왕은 재물과, 지위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왕의 영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커가면서 발람은 한 걸음씩 신성한 부름에서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왕이 약속한 선물들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자녀들을 저주하는 일을 공모합니다.(민수기 31: 16 참조) 그는 왕이 약속한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칼에 목숨을 잃었고, 한때 그가 누렸던 영적인 자유를 잃었습니다.(민수기 31:8 참조)

그리스도의 모형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 때문에 속박 당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물론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을 일부 제한시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가난은 속박의 근원이 아닙니다.

필멸의 예수께서는 소유물이 거의 없었으며 식량과 생필품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속박 당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궁극적인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은 충실한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아이들을 확인하라

매리 리치 글윈

유 타 주 맨타이에 있는 우리 집은 작았으며,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가까웠다. 우리의 아들들인 스투어트와 찬들러는 늘 함께 놀았고 한 방에서 잤다. 방은 작았고, 아이들은 트윈 베드에서 함께 자는 것을 개의치 않는 듯했다. 아이들의 발가락은 침대 중간에 겨우 닿았으며 종종 서로의 발을 간질이며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아이들이 곧 침대를 같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게를 돌아다녀 본 후 이층 침대를 사기로 했다. 남편 렉스가 새 침대를 설치할 때 아이들은 몹시 들떠 있었다. 남편은 네 살짜리 스투어트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윗침대에 판자를 댔다. 찬들러는 나이가 어리고 몸집이 더 작았기 때문에 아랫침대에서 잤다. 가족 기도가 끝난 후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새 침대로 올라갔고, 우리는 닫힌 문을 통해 킁킁거리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아이들이 잠들자 집안은 조용해졌다.

집안일, 설거지, 빨래 등으로 남은 저녁 시간을 보낸 후 나는 남편 렉스의 손을 꼭 잡고 저녁 기도를 드렸다. 마침내 우리도 하루의 일로 지쳐서 잠자리에 들었다. 깊은 잠에 빠져드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새벽 2시경 잠에서 깬 내가 시계를 보고 다시 막 잠에 빠져 들려는 순간

“아이들을 확인하라”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남편이 깨어 있나 보았지만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는데, 또 한 번 “아이들을 확인하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내 몸은 너무 지쳐서 나는 내가 깨어 있는 것인지조차 확실치

가 족 기도가 끝난 후 아이들은

각자의 새 침대로 올라갔고, 우리는 닫힌 문을 통해 킁킁거리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않았다. 내가 잠을 청하기 위해 다시 눈을 감았을 때 “아이들을 확인하라”는 목소리가 세 번째로 들렸다. 머릿속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아이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나는 결국 침대에서 내려와 아이들 방으로 갔다.

나는 어두운 복도를 걸어 부엌을 지나갔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거실을 거쳐 아이들 방 문 앞에 이르렀다. 나는 그 안에서 아주 작게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새로 산 이층 침대를 보았다. 놀랍게도, 찬들러가 윗침대에 매달려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매트리스와 판자 사이로 미끄러져 나왔는데 그만 머리가 걸린 것이었다. 그의 작은 몸은 매달린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얼굴이 매트리스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묻혀 버렸던 것이다. 스투어트는 동생이 곤경에 처한 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마도 아이들은 우리가 자리에 눕힌 뒤 자리를 바꾼 모양이었다.

나는 재빨리 찬들러를 그 좁은 틈으로 다시 밀어 올려 빼낸 뒤 아이를 팔로 꼭 안았다. 공포에 질리고 눈물이 가득한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나는 아이가 목숨을 잃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를 안고 부드럽게 흔들며 재운 뒤 아랫침대에 있는 형 옆에 눕었다. 찬들러가 윗침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나를 괴롭혔다. 그런 상태로는 몇 분 밖에 더 살 수 없었을 것임을 나는 알았다.

두 아들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영을 마음으로 느꼈고 그날 밤 내게 기적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다시 침실로 돌아간 후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받은 반복된 속삭임과 우리 가족의 안전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

나의 결정에 충실함

야즈민 오제다

나는 열한 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처음 집회소에 들어가던 순간부터 나는 아름다운 영을 느꼈다. 나는 몇 개월 동안 계속 교회에 참석했으며 그 사이에 열두 살이 되어 청년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개월 후인 1994년 8월 14일, 나는 침례를 받았다.

열두 살 된 여자아이가 부모도 없이 혼자 침례를 받는 것은 와드 회원들에게 놀라운 일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아버지께 침례를 받아도 될지 물었다. 아버지는 “넌 똑똑한 숙녀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네가 알 게다”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이미 마음 속으로 내가 참된 복음을 들었을 때 느낀 아름다운 느낌을 절대로 잃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였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나에게 특별하면서도 힘겨운 기간이었는데, 사춘기 청소년으로서 부모의 지지와 지원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부모가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일을 할 때 가정에서 혼자만 교회 회원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니파이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몇 년 후 동생들이 침례를 받았지만 부모님은 받지 않으셨다. 선교사들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부모님은 침례를 받고 싶어하지 않으셨다. 그러한 결정은 나를 슬프게 했지만, 나는 내가 좋은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 있는 성전에 갔는데, 그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였다. 나는 혼자 갔으며 조상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 2년 후 청년 표창을 받았을 때 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여 성전에 가라고 권고하셨을 때, 나는 영원한 결혼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대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섬,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하여 회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웃 섬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성전에 가라고 권고하셨다. 나는 그렇게 했으며 성전 안에서 귀환 선교사와 영원한 결혼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귀환 선교사인 합당한 신권 소유자를 만남으로써 나의 목표는 성취되었다. 우리는 도미니카 공화국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다. 현재 우리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으며, 나는 스테이크 청녀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다. 부모님은 아직도 회원이 아니지만, 나는 내가 그분들께 보여 드린 모범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부모님의 불완전함을 잊고 그분들이 지닌 훌륭한 성품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가 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안다. 내가 기도로 간구하는 꿈은, 언젠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인봉을 받는 것이다. 나는 내게 너무나 많은 기쁨과 소망을 준 이 복음을 사랑한다. ■

축복

조엘 알 브라이언

에번 페인은 캘리포니아 주 사우전드 옥스에서 주유소와 자동차 수리 공장을 운영했다. 그는 잘 웃었으며 사람들의 이름은 더 잘 기억했다. 그는 자신의 고객과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차에 대해 잘

알았다. 이번은 일주일에 6일 동안 늦게까지 일했으며,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가족 문제가 있는 십대들에게, 혹은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귀환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다. 그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거나 아침 일찍 출근하곤 했다. 동네의 거의 모든 사람이 에번을 알고 또 좋아했다.

에번은 또한 집과 교회에서도 바빴다. 그와 그의 아내 베키는 일곱 살부터 열세 살까지 다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는 감독단 보좌로 두 번, 감독으로 한 번 봉사했으며 현재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에번은 젊고 활발하며, 행복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머리색은 짙었으며 얼굴은 준수했다. 그는 스키와 교회에서 하는 소프트볼과 농구를 좋아했다. 따라서 나는 그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진단을 받은 후 몇 달 동안, 그의 가족과 와드 및 스테이크 사람들은 그를 위해 몇 차례 금식했다. 에번은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에번의 병이 완화되지 않자, 그의 형제들이 골수를 기증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진을 받았다. 그러나 일치하는 골수는 없었다. 그와 베키는 만약의 경우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했지만, 에번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었다. 그는 고통을 받는 것이 분명한데도 거의 매일 일을 계속했다.

하루는 우리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에번이었다. “조엘 형제님, 오늘 저녁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형제님 와드의 회원을 함께 방문해 축복을 해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누구를 축복하시려고요?” 하고 내가 물었다.

“샬리 칼라일(가명) 자매라고, 샌디에고에서 오신 나이 드신 자매님입니다. 칼라일 자매님은 지금 따님인 조운 윌슨 자매를 방문하러 이 지역에 와 있는데, 조운 자매는 활동 회원이 아니에요. 윌슨 자매 가족의 가정 복음 교사와 함께 가는 게 맞겠지만,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그 자매님은 당장 축복이 필요해요. 저를 데리러 오실 수 있을까요?”

나는 마음이 철렁했고, 죄의식의 물결이 밀어닥쳤다. 나는 여러 달 전 윌슨 자매 가족의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되었지만, 아직 전화조차 한 통 하지 않았었다. 전화를 걸거나 잠시 들러야겠다는 생각은 몇 번이나 했지만, 매번 가지 못할 이유를 들어 합리화했다. 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에번에게 일곱 시에 데리러 가겠다고 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에번은 윌슨 가족이 여러 해 동안 그의 정비소 고객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운은 교회에서 성장했으나 청년기에 비활동 회원이 되었다. 그녀는 교회 회원이 아닌 마이크 윌슨과 결혼했으며, 그들은 네 아이들을 마이크의 교회에서 키웠다. 에번은 우리가 감기에 걸린 조운의 모친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운이 공장에 있는 에번에게 전화를 해서 와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가 알고 있는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다.

우리가 윌슨 자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조운은 문에서 우리를 맞이했으나 우리가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고 있는 동안 우리 앞에서 자리를 피했다. 샬리 자매님은 딸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사위와 딸이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잠시 동안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뒤, 내가 샬리 자매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에번이 축복을 했다. 위안과 건강을 위한 간단한 축복이었다.

나는 집으로 오면서, 그 신권 축복을 목격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나는 또한 윌슨 가족을 만나고 에번 페인 형제와 함께 보낸 그 순간들에 대해 감사했다. 불과 몇 개월 후,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윌슨 가족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들은 나를 반갑게 맞이했으며 에번의 친구로 기억해 주었다. 처음에는 그저 에번, 그리고 그가 우리 지역에 미친 선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후로 15년간 윌슨 가정의 가정 복음 교사로 있었으며, 에번처럼 언젠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우려 노력했다. 마이크와 조운은 내게 좋은 친구가 되었으며 그들 또한 내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조운은 다시 활동 회원이 되지도 않았고 마이크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항상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내가 감독으로 봉사하는 동안 조운이 세상을 떠났다. 그때 마이크는 와드 선교사 기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기부했다. 그 돈은 십대에 개종하여 가족의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 와드 청년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쓰였다. 마이크의 기부는 이 젊은

장로가 가르친 많은 개종자들의 삶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나는 오래전 그날 밤, 에번이 내게 교훈을 줄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에번처럼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정 복음 교사로서 에번처럼, 그리고 구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만큼 충실해지고자 노력하고 있다. ■

내 가 샬리 칼리일 자매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에번이 축복을 했다. 나는
집으로 오면서, 에번 페인
형제와 함께 보낸 그
순간들에 대해 감사했다.

1 일 시장

자신이 페루 트루히요에 살고 있는 젊은 후기 성도라고 상상해 본다. 이제 자신이 그곳 시장이라고 상상해 본다.

한 지역 신문이 আমি 아레아테구이 포소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의 사진에서(맞은 편 페이지) আমি 자매가 트루히요의 시장과 만나 자신이 시장으로 근무하는 날의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15 살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수십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중압감은 조금 더 커지게 된다. আমি 아레아테구이 포소 자매가 123명의 학생들 중에서 페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트루히요의 시장으로 선발되었을 때 직면했던 상황이 그러했다. 포소 자매는 그날 1일 시장이 되었다.

아미는 페루 트루히요 라우렐레스 스테이크 무세라트 와드에서 장미반 소녀였을 때 공학 아카데미(Academy of Engineering)라는 중등 학교에 다녔다. “제 목표 중 하나는 이 학교에서 학생 회장이 되는 것이었고 저는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건 제 꿈이었어요. 제 다음 목표는 ‘1일 시장’ 경선에서 우승하는 거였고, 이제 그 목표도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해 냈어요. 제가 우승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라고 아미는 말한다.

물론, 시의 여러 학교와 지역을 개선하는 데 대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도 도움이 되었다. 경선을 위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많은 노력이 드는 일이었지만, 어떤 것을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일은 쉬운 편이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아미는 자신이 신뢰하게 된 방법—즉 그녀가 말하는 자신감을 가져다 준 방법을 사용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 과정이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돼요.”라고 아미는

말한다. 이것은 트루히요 시가 그녀를 “1일 시장”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발표했을 때 그녀가 자신의 책임을 것처럼 잘 처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시 의회는 그녀가 시장으로 있는 24시간 동안 그녀의 활동을 인정하기로 결의했다. 모든 계약, 결정, 그리고 승인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었다.

1일 시장

아미는 오전 7시 30분, 10년 이상 트루히요 시의 시장을 지낸 호세 무르기아 사니에르 시장보다도 더 일찍 시청에 도착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직책에 임명되고 나서 그녀는 무르기아 시장과 만나서 그날의 일정을 검토하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조정했다. 시장으로서 보내는 바쁜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시장의 공무 차량을 타고 아미는 시에서 스포츠 및 오락 센터를 짓기로 계획하고 있는 한 공원을 시찰하러 갔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한 공립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 교실 두 칸을 짓는 공사의 진척 상황을 둘러보았다.

시 청사로 돌아와서 아미는 관선 변호인단 사무국 관리 한 명과 산 호세 어린이집의 원장과

EL HERALDO





만났다. 아미는 일단의 인부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 몇 가지 필요한 수리를 하게 하라는 결정을 신속히 내렸다. 그녀는 또한 기금을 신청하려는 몇몇 다른 학교로부터 방문을 받았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미는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는 표제로 자신이 계획한 청소년 지도력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시내의 100개가 넘는 학교의 청소년 리더들이 매달 시 정부 관리들과 만나 교육의 필요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미는 시 의회 모임을 주재하면서 개회를 선언하고 출석을 불렀다. 또 새로 단장한 시 공원의 개장식에서 나무를 심고 그 지역에 사는 이웃들의 요구 사항도 경청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시내의 한 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했다.

아미는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한 지역 신문은 이 어린 여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명석함, 침착함, 그리고 유능한 지도력이 돋보인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목표와 목적하는 바가 훌륭했다.”

교육과 우선순위

1일 시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경험한 일들로 인해 아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많은 필요 사항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한 필요 사항 중 하나인 교육은 이미 아미의



계획과 프로그램의 주요한 초점이었다. 그러나 학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삶에는 세속적인 교육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미는 알고 있다.

“페루의 문화 수도로 여겨지는 이곳 트루히요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제쳐두고 공부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가지 않거나, 종교교육원 강의와 교회 모임에 가기를 중단하는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라고 아미는 말한다.

그래서 아미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심리학자가 되려고 계획하는 한편,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부름과 개인적인 영적 발전에 있어서도 열심이다. 그녀는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것, 즉 공부할 때, 교회에 갈 때, 친구나 가족과 함께할 때, 그리고 즐거움을 얻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보는 시각과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아미는 이렇게 설명한다. “선지자는 젊은이들이 가능한 한 많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항상 마련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적인 일을 하기 위해 교회를 떠날 필요가 없어요.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래 친구들과보다 원리를 우선시함

페루의 젊은이들도 전세계의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세상의 길을 따르도록 하는 유혹-외설물, 부도덕, 그리고 부정직은 강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중 대다수가 비회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옷차림과 음악 같은 유행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원리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이끌려 가기가 쉬워요.”라고 아미는 말한다. 그녀는 우리의 표준을 느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들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또 다른 문제는 나이 어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때때로 친구들을 잃게 된다는 점이에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아미는 자신의 가족과 와드 회원과 세미나리 학생들 중에서 친구와 힘을 얻은 것이 축복이라고 느낀다. 그들은 그녀가 주님을 따르도록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었다.

결정에 대한 자신감

이제 트루히요의 시장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본 아미의 장래 계획은 무엇일까? “일단 학생 회장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지역 자치제 시장과 도지사를 거쳐 페루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될 거예요.”라고 아미는 설명한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이 지상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자신감이 없다고 아미는 말한다. 복음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아감으로써 아미는 자신이 의롭게 소망하는 일이면 무슨 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저는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확인을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분의 영을 느끼고 그분이 저의 선택을 승인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제게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분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저는 모든 일이 언제나, 늘 잘 되어갈 것이라고 느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

신 문의 사진(맞은 편 페이지)은 아미 자매가

새로 단장한 시 공원을 개장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삽입 사진: 아미 자매(가운데 앞)가 세미나리 친구들과 함께 서 있다.



지식의 원천

저에게 *리아호나*는 지식의 원천이며 매일매일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호에 실린 “경전 공부에 대한 토론”이라는 제목이 붙은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님과의 대담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 자료 덕분에 저는 경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산드로 에베랄도 폰테 마카도, 브라질

중요한 자원

저는 교회에 들어온 이래 통가어로 된 *리아호나*를 읽는 것이 좋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저의 지식과 이해가 커짐에 따라 이 잡지는 저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교육원 교사인데 제 수업, 말씀, 그리고 영적인 생각들을 준비하는 데 *리아호나*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종종 제일회장단 메시지에 초점을 둡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원리와 교리는 저의 삶에 빛이 됩니다. *리아호나*를 부지런히 읽고 경전을 공부할 때 저는 신성한 권세와 성령의 인도를 느끼고, 이러한 것은 제가 이 위험한 여정을 하며 험악한 길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또한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 관한 소식도 재미있게 읽습니다.

사이아투아 이에올라 파아포이, 뉴질랜드

온라인 리아호나

저는 *리아호나*와 이 잡지에 실려 있는 내용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리아호나*를 온라인으로 접하고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인터넷에서 *리아호나*를 읽는데 이는 저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물론경 전체가 온라인으로 출판되는 것을 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모든 경전이 스페인어로 출판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서든 경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호세 카라스코 베니테스, 페루

편집자 주: *리아호나*는 온라인상에 12개 언어로만 실립니다. www.lds.org로 가서 world map을 클릭하신 후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스페인어로 된 경전 또한 이제 www.lds.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호

교회에 새로 들어온 회원이십니까?
또는 새로 들어온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2006년 10월호 *리아호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10월호는 특히 교회의 신회원들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독자들이 신회원 친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스터 제작을 도와 주세요

아래에는 제목과 글이 들어 있지 않은 포스터 도안이 있습니다. 이 도안을 포스터로 꾸미는 것을 도와 주십시오. 이 그림은 어떤 복음 진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포스터 상단에 넣을 짧은 독창적인 제목(1~6개 단어)과 하단에 넣을 글을 써 주십시오. 참조 성구를 포함시켜도 됩니다. 포스터의 예를 보려면 이전 *리아호나*들과 이번 호 2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2006년 8월15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Liabona Poster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bona@ldschurch.org



친구들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우 리 시대의 혼란 속에서, 굳건한 신앙은 우리의 삶에 닳이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가족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으로써, 우리는 위대한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이 글래드스톤이 세상의 가장 큰 필요 사항이라고 표현한 것, 즉 “인격을 지닌 하나님에 대한 살아 있는 신앙”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처음으로 사모아 사우니아투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의 아내와 저는 약 200명쯤 되는 많은 어린이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줍어 하지만 아름다운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끝맺으며, 저는 사모아 원주민 교사에게 폐회 순서를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그가 폐회 찬송이 무엇인지 말했다를 때, 저는 갑자기 이 어린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인사를 해야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그러한 특권을 갖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출국 비행기를 타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폐회 기도를 하기 전에 저에게는 각 어린이와 약속해야 한다는 느낌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교사에게 알리자 그는 사모아인 특유의 크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사모아



몬슨 회장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생활할 때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말로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의 환한 미소가 찬성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사는 그와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제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한 분이 교회 본부에서 이처럼 멀리 떨어진 이곳 사모아로 우리를 방문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어린이들에게 만일 그들이 간절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옛적의 성경 이야기와 같이 신앙을 행사하면 그 사도님은 사우니아투에 있는 우리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개인적인 약속으로써 각 어린이와 인사하려는 느낌을 갖게 되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소중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수줍게 걸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사랑스런 사모아 인사말인 “탈로파 라바”를 부드럽게 속삭일 때 저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깊은 표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할 때 여러분은 성신의 동반을 얻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의 온전한 밝은 빛”(니파이후서 31:20)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주님의 등대: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리아호나, 2001년 5월, 2~7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참기

참기

참기

참기

Four vertical rectangular boxes, each containing fiv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112:10)

린다 매글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샬롯 클라크는 가족이 서쪽으로 여행해서 솔트레이크로 가려고 일리노이 주 나부를 떠났을 때 겨우 여섯 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걷기에는 멀고 먼 길이었습시다. 샬롯은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에 한 켤레밖에 없던 신발이 다 닳아 버렸습니다. 샬롯은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신발 한 켤레를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하루는 샬롯이 여동생과 함께 딸기를 따고 있었는데 신발 한 켤레가 눈에 띄었습니다. 샬롯은 동생과 함께 부모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신발을 보내 주셨어요. 나한테 꼭 맞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샬롯의 아버지는 그 신발이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신발이 그들의 마차 대열에 있는 누군가의 것이라면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샬롯에게 말했습니다. 샬롯의 가족은 그 신발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지만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샬롯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분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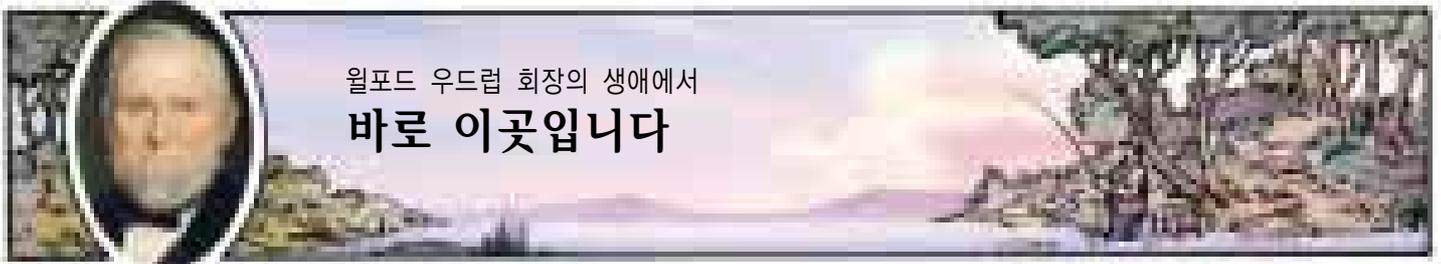
기도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친4쪽에 있는 모형들을 굵은 검정색 선을 따라 오려낸다. 점선을 따라 접고 난 후, 큰 모형을 풀로 붙여 납작한 튜브 모양으로 만든다. 좁고 긴 조각 위에 그어져 있는 줄 위에 감사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과 기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축복에 대해 적는다. 튜브 모양 속으로 좁고 긴 조각을 넣는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것이 생각나도록 이것을 여러분의 베개 위에 둘 수 있다. 밤에는 이것을 침대 곁에 두어 아침에 기도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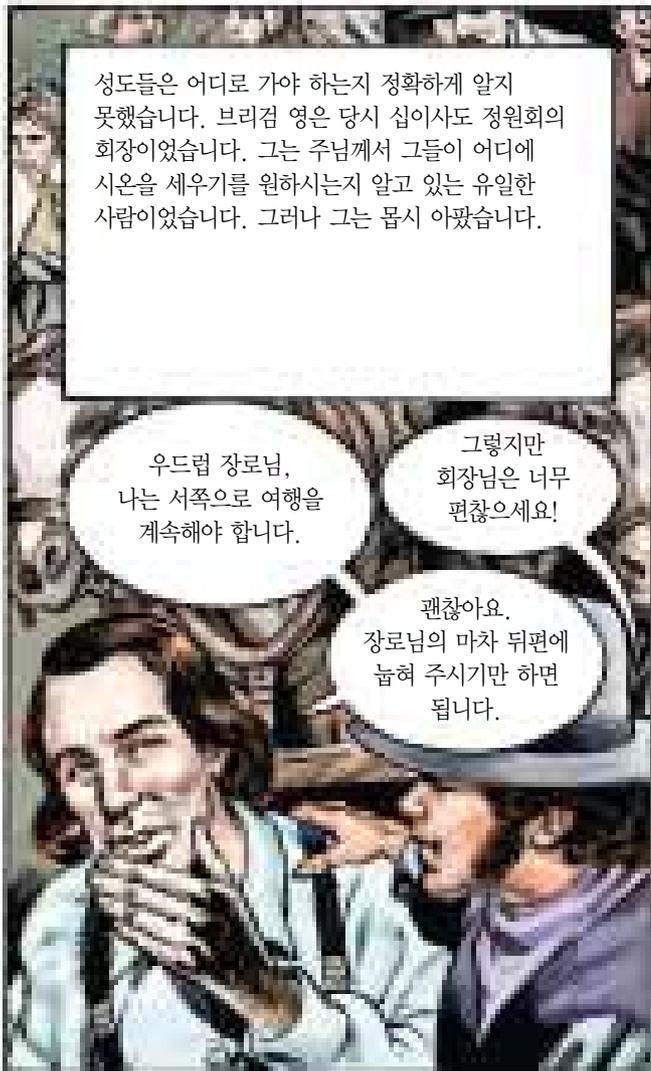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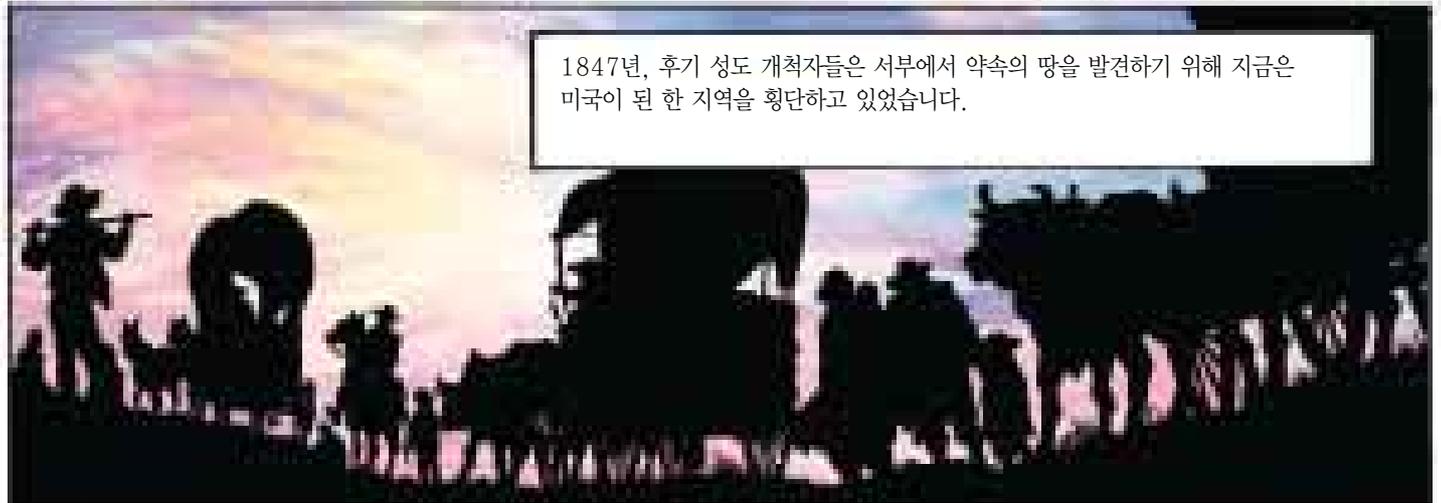
1. 독자의 극장(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177쪽]을 사용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 초등회 공과를 하기 전에, 다니엘 6장을 지침 삼아 간단한 대본을 쓴다.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경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용한다. 참여자는 해설자, 다니엘, 다리오 왕, 여러 총리와 고관들, 그리고 사자들로 한다. 예를 들어, 총리들과 고관들은 8절에서 인용하여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으소서”라고 말한다. 다니엘은 22절에서 인용하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라고 한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전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토론한다. 초등회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참조 성구를 하나씩 준다. 예를 들면, 한나(사무엘 1:8~20), 사가랴(누가복음 1:5~13), 니파이(니파이전서 17:8~10), 이노스(이노스서 1:1~6), 그리고 엘마1세(모사이야서 27:8~14).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읽게 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그룹 구성원들과 서로 이야기하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날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한다.

2. 와드에서 두세 명을 초청하여 개척자 옷차림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척자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한다. 일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63~164, 177~178쪽). 개인적인 가족 역사 이야기를 사용하거나 이 페이지에 나온 샬롯 클라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간증한다. ●



월포드 우드럽 회장의 생애에서
바로 이곳입니다

1847년, 후기 성도 개척자들은 서부에서 약속의 땅을 발견하기 위해 지금은 미국이 된 한 지역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브리검 영은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시온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몹시 아팠습니다.

우드럽 장로님, 나는 서쪽으로 여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장님은 너무 편찮으세요!

괜찮아요. 장로님의 마차 뒤편에 눕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1847년 7월24일, 우드럽 장로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를 향해 자신의 마차를 끄는 말들을 몰았습니다. 마차 뒤편에는 영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 회장님을 축복하셔서 그가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영 회장은 크레이트 솔트레이크의 황량한 계곡을 보자마자 우드럽 장로에게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께서 시현으로 이곳을
내게 보여 주셨습니다.



22년 후, 우드럽 장로는
일지를 기록하면서 이 일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나는 개척자의 날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의 수는
이제 100,000명 이상에
이른다. 하나님의 업적을 보라!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04년), 146~148에서
발췌.

“너희의 모든 서약을 서로 지키라” (교리와 성약 136:20)

나의 동생, 나의 모범

새나 버틀러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내가 여덟 살쯤 되었을 때, 나는 자메이카에 살고 있었다. 자메이카는 굉장히 더워질 때가 있다. 어느 날 우리 이모가 수영장이 있는 친구 집에 이모와 사촌과 함께 가져다 했을 때 나는 정말 신이 났다. 햇빛이 내리쬐는 날, 시원한 수영장은 정말 좋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가도 좋지만 누가 우리를 봐 줄지 모르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나는 시원해지도록 물에 발만 담그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사촌은 곧바로 물에 뛰어들었다. 다른 친구들도 몇 명 와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다. 모두 다 내게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권했고, 나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바깥은 너무 더웠고 이모가 어머니께 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다.

이모가 어머니에게서 무언가를 숨긴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한동안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놀았다. 내가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머니께서 아신다면 어떻게 될지 수영하는 내내 무척 걱정이 되었다. 집에 돌아갔을 때, 머리를 물 밖에 계속 내어놓고 있으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는 약간 젖어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수영을 했느냐고 물으셨고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참 오랫동안 이 일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혼나고 싶지 않았다.

몇 년 후, 여동생 브리엘란이 일곱 살이 되었을 때 동생은 친구 몇 명과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에 가자는 초대를

받았다. 어머니는 내게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동생에게 하시면서, 가서 재미있게 놀되 수영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동생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동생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동생에게 수영을 해도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동생은 어머니께서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머니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말에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수영하지 않겠다고 친구들의 부모님들에게 말했다. 어른들은 괜찮다고 동생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동생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그릇된 일을 시키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생이 바닷가에서 보낸 날은 내가 수영장에서 보낸 날만큼 더웠고, 동생도 나처럼 수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생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선택했고, 그것은 내게 큰 모범이 되었다.

어머니께서 동생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내게 하셨을 때, 나는 전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내가 결국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고마워하셨다. 어머니는 어머니께 순종하기로 한 동생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나 또한 그랬다. ●



성화: 스티븐 크롬, 사진 촬영: 부니스 포스트그레피



“정직은 우리 인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정직은 우리가 어릴 때 시작됩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We Seek After These Things”, *Ensign*, 1998년 5월, 44쪽.



청녀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김벌리 웹
교회 잡지

11세 소녀들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

상 호 향상 모임, 개인 발전, 주제. 이러한 단어들이 익숙하게 들립니까? 만약 여러분이 곧 12세가 되는 소녀라면 머지않아 이 말들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청녀반에 들어가는 데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달라고 청녀 본부 회장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님과 제2보좌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님께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고 태너 자매님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선하고 아름답고 또 열의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청녀반에 들어오는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며 그곳에서 여러분을 감싸 안고 여러분이 환영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녀반에서의 첫 번째 일요일

드디어 여러분은 12세가 되었습니다. 이번 일요일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는 대신, 여러분은 청녀반에 가게 될 것입니다. 태너 자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여러분이 발전하는 것을 지켜 봐 왔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환영할 청녀 지도자들, 꿀벌반 회장단, 그리고 그 밖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맞이해 줄 것입니다.”

꿀벌반은 12세 또는 13세의 청녀들입니다. 즉, 바로 여러분입니다! 14세에서 15세까지의 청녀는 장미반이라고 하고, 16세에서 18세까지는 월계반이라고 합니다.

비록 청녀반이 초등학교와 다르기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에서 사랑을 듬뿍 받는 가운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라고 돌튼 자매님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강한 간증의 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녀에서 여러분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해서 자랄 것입니다.”

청녀 주제 및 가치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어린이 노래책, 2쪽)를 배웠을 때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다고 태너 자매님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청년 주제의 첫 번째 행입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잡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태너 자매님은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하는 영의 딸이라는 확고한 간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삶의 문제에 대응하는 모든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줍니다.”

돌튼 자매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힘과 소망과 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후일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청년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일곱 가지 가치관, 즉 신앙, 신성한 성품, 개인적인 가치, 지식, 선택과 책임, 선행 및 고결성에 대해 배울 때, 청년에 속하는 것은 여러분이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주제를 암송하기 위해 썼을 때 아직 다 알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은 그것을 외울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생활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 발전

“저는 개인 발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름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하고 태너 자매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 각자가 우리가 일생 동안 계속 발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프로그램처럼, “개인 발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여러분은 결심을 지키는 연습을 할 수 있고 성약을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태너 자매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 발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일곱 가지 범주, 또는 일곱 가지 가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튼 자매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개인 발전’을 가지고 노력할 때, 여러분은 경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은 여러분이 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큰 가치, 그리고 여러분의 침례 성약을 여러분은 좀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성전 성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발전’ 기록부 표지에 성전이 있는 이유입니다.”라고 태너 자매님은 말합니다. “그것은 ‘개인 발전’ 이 준비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활동과 노년의 모임

활동의 밤, 또는 상호 향상 모임은 매주 열립니다. 여러분은 주로 청년들과 만나거나, 꿀벌반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의 활동에 청년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화 행사 또는 봉사 활동에 참석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운동을 하는 등, 언제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청년에 속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노년의 모임, 청소년 대회 및 다른 여러 모임에 참석할 기회 또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매년 여러분은 연차 대회같이 전세계로 방송되는 특별한 모임을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4월 연차 대회 전 토요일에 있는 청년 총회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우리의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의 권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영

“이것은 여러분이 나머지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입니다.”라고 태너 자매님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야외에서 좋은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가족에 속해 있다는 커다란 소속감”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전거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배우고, 공예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녀들은 간중 모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아직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녀에 속함으로써 많은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을 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돌튼 자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청녀반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재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자신의 재능으로 청녀반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여러분이 피아노 교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청녀반 또는 상호 향상 모임의 개회 시간에 반주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녀에서 첫 번째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원이 충분하다면, 각 반에는 회장 한 명, 보좌 두 명, 그리고 서기 한 명이 있습니다. 돌튼 자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 회장단은 여러분을 보살피고 여러분이 행복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활동에 대해 연락을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반 회장단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동안 도움이 될 지도력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열의를 갖는 것입니다. 태너 자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청녀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열의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는 일곱 명의 소녀로 이루어진 한 청녀 모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가장 어린 소녀가 손을 들었는데, 그 소녀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저 소녀는 두려움이 없구나!”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욱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청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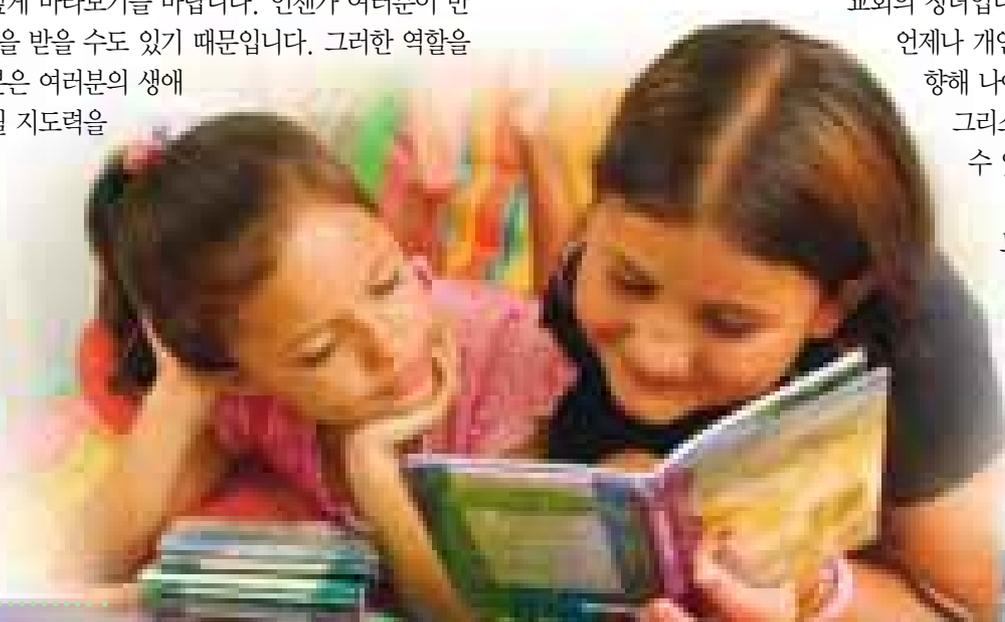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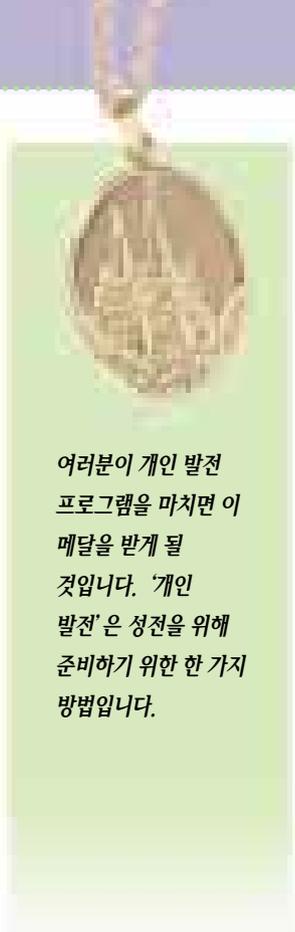
어쩌면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는 반 회장단을 갖기에는 너무 작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매주 활동에 참석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청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서 혼자만 청녀라고 해도 여러분은 매주 주제를 낭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치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언제나 ‘개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태너 자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청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녀 모임이 지향하는 모든 것입니다. ●

여러분이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마치면 이 메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인 발전은 성전을 위해 준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가정의 밤에서 재미있는 게임으로 할 수도 있고, 일요일 상자에 넣어 둘 수도 있다.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친16쪽 참조)



일요일 상자 연필 돌리기

언젠가 전임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말한다.

아빠나 엄마를 껴안아 드린다.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는지 보여 준다.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를 해 준다.

좋아하는 초등학교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한다.

유의 사항

1. 각각의 사각형을 오려 낸다.
2. 사각형 조각들을 종이 봉지에 넣은 후 봉지 입구를 막고 흔들어 섞는다.
3. 참여자들을 마루 바닥에 둥그렇게 앉힌다.
4. 원 한가운데에 연필을 두고, 참여자 한 명을 선택해서 연필을 돌리게 한다. 연필이 멈추면 연필이 가리키는 사람은 종이 봉투에서 사각형을 하나 꺼내 질문에 답하거나, 거기에 쓰여 있는 대로 한다. 이제 그 사람이 연필을 돌릴 차례이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 준 좋은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다가 얻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감사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말한다.

우리는 왜 성찬을 취하는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말해 본다.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지 설명한다.

초등학교나 주일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대해 좋아하는 점을 말한다.

우리는 왜 부활절을 경축하는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 한 가지를 말한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한 가지는 무엇인가?

성스러운 숲에서 조셉 스미스를 방문한 것은 누구였는가?

오늘날 우리의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침례를 받는지 말한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말한다.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뜯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신권으로 축복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제3니파이 17:21)



칠십인의 더글라스 엘 콜리스터 장로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마리사 에이 위디슨, 교회 잡지.

아 내와 저는 동유럽에서 봉사할 때 러시아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성 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 에르미따주에서 한 시간 가량 보냈는데, 우리를 안내하던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보물 중 어떤 것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러시아의 막대한 부가 에르미따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었고, 성찬식 모임 중에 한 어린 소녀가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와 다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이 그 소녀 옆에 서서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의 부는 에르미따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의 부는 러시아의 어린이들에게 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가까이 서서 우리의 손을 그들의 머리에 얹고 그 어린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

수 년 전, 우리 막내 아이의 허리에 치명적인 골종양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수술을

받으러 병원으로 갔을 때 저는 복도에서 의사들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병실로 돌아가 그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분명히 최상의 의학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의사 선생님들께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축복에 의지하고 있어요. 아빠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저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제겐 그 축복이 이루어지리라는 신앙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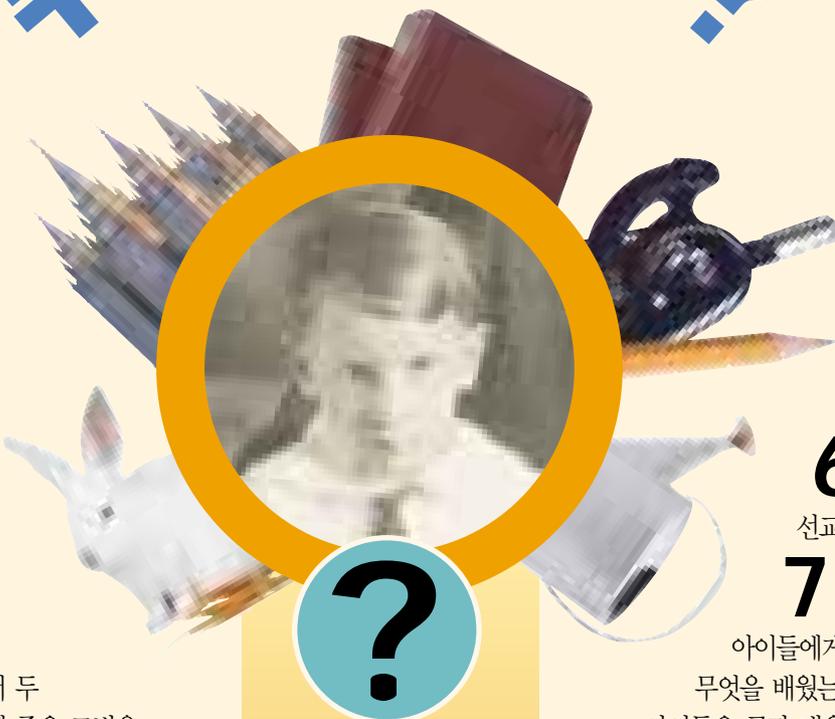
제 아들은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신권 축복이 가진 권능의 한 예입니다. 제가 교회 봉사를 통해서 얻게 된 교훈 중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며, 많은 경우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



밤음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이분에 대한 단서들을 읽은 다음 밑에서 답을 찾아 보세요.

1 그는 가족의 장남으로서 두 여동생과 두 남동생에게 좋은 모범을 보였다. 친절하고 도움을 잘 주었으며, 성실한 학생이었다.

2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구주의 탄생에 관한 것이다.

3 그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 생활을 즐겼다. 여러 가지 과목을 좋아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였다.

4 그의 부모님들은 그에게 일에서 오는 축복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자라면서 정원에서 일했고 가족들의 토끼, 닭, 그리고 개들을 돌보는 일로 늘 바쁘게 지냈다.

5 그와 그의 아내 일라이저 자매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일라이저 자매는 그가 “친절하고 온화했”고, “그의 영성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불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된다. 그들은 온 세상 사람에게 그분에 대해 증거할 책임을 갖고 있다.

6 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7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면 그는 아이들에게 주일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묻곤 했다.

아이들은 공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경전을 사용해서 그 주제에 대해 더 설명했다.

8 그와 그의 아내는 딸 일곱과 아들 하나를 두었다.

지혜의 말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알려 주신 말씀이 담겨 있는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킬 때,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향해 생각을 열고 성령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한 발 한 발”, 리아호나, 2002년 1월, 29쪽)

러셀 엠 넬슨 장로, 브라질 교회 역사적인 방문



사진 제공: 브라질 남 지역 회장단

러셀 엠 넬슨 장로(왼쪽)가 헤랄도 알크민 상파울루 주지사에게 소형 조각상을 선물하고 있다. 왼쪽부터 머빈 비 이놀드 장로, 모로나이 토르간 후기 성도 연방 의원, 그리고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십 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브라질 교회에서 역사적인 날로 남은 2006년 2월 3일, 브라질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며 잘 알려진 관리 두 명, 호세 세라 상파울루 시장과 헤랄도 알크민 상파울루 주지사의 영접을 받았다.

세라 시장과 만나는 동안, 넬슨 장로는 세라 시장이 연방 정부의 보건 장관이었던 2001년 8월 15일에 브라질리아에서 그를 만났을 때 시작된 우정을 새롭게 했다. 매우 최근에 이루어진 이 방문 동안에 시장은 교회의 인도주의 지원 및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봉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의 교회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수년 동안 교회는 브라질에서 학교 페인트 칠 작업, 공원 청소, 병원

환자복 수선과 같은 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후원해 왔다.

넬슨 장로는 교회의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 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으며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라 시장에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한 부를 증정했으며 구주의 신성에 대해 간증했다. 또한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 방문자 센터에 있는 그리스도상을 복제한 작은 그리스도상을 시장에게 증정했다. 베르텔 토발드센의 원작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다.

방문이 끝날 즈음 세라 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와 시장실의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도우며, 궁핍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좀 더 늦은 시간에 넬슨 장로는 헤랄도 알크민 상파울루 주지사와의 공식 회견을 통해

영접을 받고 주지사와 우정과 이해의 유대를 맺었다. 높은 가족 표준을 지닌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알크민 주지사는 그의 부친의 가르침을 회상했다. 그러자 넬슨 장로는 교회의 몇 가지 원리와 가치관을 소개했으며, 주님의 계획에서 가족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지사는 2004년 2월에 있었던 상파울루 성전의 재헌납에 앞서 가진 일반 공개 모임에 참석했던 일을 회상했다.

“이곳 상파울루에 있는 교회 성전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깊은 감명을 느꼈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 좀 더 큰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지사는 넬슨 장로에게 말했다.

주지사는 방문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곳 상파울루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자원 봉사 사업을 행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원리들과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을 끝낼 즈음 회견을 녹화하는 동안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넬슨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관대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정말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주지사 또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과 소형 복제 그리스도상을 받았다.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며 브라질 남 지역 회장인 머빈 비 아놀드 장로,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연방 의회의 모로나이 토르간 의원, 그리고 브라질 공보 책임자인 페르난도 아시스 장로가 넬슨 장로와 함께했다. ■

Church News, 2006년 2월 18일자에서 발췌.

교회 봉사 선교사들을 위한 많은 기회

브리트니 카포드, 교회 잡지

돈 지글러 장로와 통화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돈 지글러입니다. 전화로 술래잡기를 하는 게 운동이 될까 궁금한데요.”라고 그는 장난스런 전화 음성 메시지를 통해 그렇게 말한다. 꺾꺾 웃는 소리가 뒤따른다. 그러나 교회 봉사 선교사들은 교회 본부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바빠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과일과 채소의 보급을 촉진하거나, 건강 박람회를 계획하거나,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영양가를 식당 게시판에 올리느라 바쁘다.

이러한 일은 지글러 장로와 그의 아내 샤론 지글러 자매가 교회 봉사 선교사로서 함께 하는 일에 포함된다.

이것이 놀라운가?

젊은이와 나이든 사람 모두가 할 수 있는 시간제 교회 봉사는 매우 다양하다. 교회 봉사 선교사로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고, 요구되는 일을 수행하기에 신체적, 정서적 역량이 있고, 자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19세가 되어야 한다. 연령의 상한선은 없다.

교회는 LDS.org에 이러한 필요 사항 목록을 올려 두고 있다. 전 세계의 교회 봉사 선교사 책임자들이 제출한 이 내용은 온라인

www.lds.org/csm에서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공표된다.

의사, 안내자, 정비원, 심지어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사람 등,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원활하게 움직이는 일을 돕는 자원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약 12,000명의 교회 봉사 선교사가 전세계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교회 봉사 선교사 전체 프로그램의 책임자 및 행정 보조인 래리 엘 와이팅 장로와 케이더블류 와이팅 자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 기회에 대해 안다면 더 많은 자리가



교회 봉사 선교사인 팀 캠벨 형제와 대릴 마일즈 형제가 봄에 대비해 텀플스퀘어 주변의 땅을 준비하고 있다.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선교사들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일 주일에 4시간에서 32시간에 이르기까지 시간제로 봉사하면서, 주님을 위한 봉사 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전세계 곳곳에서 교회 봉사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일하는 곳에 특별한 영을 가져다 준다고 모두 말한다.

와이팅 장로와 자매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모든 교회 봉사 선교사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지만, 시간제 봉사 선교 사업이 전임 선교 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성하게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 한다.

“우리는 교회 봉사 사업과 그 외 선교 사업에서 주님의 손길에 의해 사람들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와이팅 장로는 말했다.

하지만 교회 봉사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부름은 전임 선교 사업을 위한 부름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온다. 기꺼이 봉사하기로 한 합당한 사람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공식 중인 직책을 선정 한다.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과 접견을 갖는 것 이외에도, 요구되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서 내지 업무 관리자가 종종 그 사람을 면접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선지자가 아닌 스테이크 회장이게서 부름을 받아 감독에 의해 성별된다.

와이팅 장로는 교회 봉사 선교 사업이 전임 전도 선교 사업에 대한 차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러한 봉사 선교 사업은 탁월한 대안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봉사 선교 사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전임 선교사로 봉사 합니다. 이는 훌륭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교회 봉사 선교사로 추천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고, 요구되는 일을 수행하기에 신체적, 정서적 역량이 있고,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적어도 19세가 되어야 한다. 연령의 상한선은 없다.

실제로, 현재 102세인 매리 앨리스 헨스 자매는 자신의 신청서에 조셉 스미스 기념관에서 안내자로 삼 년 동안 봉사 하겠다고 적었다.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교회 봉사 선교사로서 봉사해 왔다.

“저는 그 일이 정말 좋았어요.”라고 헨스 자매는 말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연령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매년 나무에서는 여 름 뮤지컬 제작에 참여하도록 35명의 젊은(19~24세) 무대 공연 선교사 및 밴드 선교사를 모집한다.

와이팅 장로는 컴퓨터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는, 시청각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같은 젊은 봉사 선교사들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었던

약 300명에 이르는 젊은 성인들이 현재 교회 봉사 선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봉사



사진 촬영: 이담 시 울슨

게리 피츠제럴드 형제가 컨퍼런스 센터에서 안내자로서 교회 회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와 그의 부인 가르나 자매는 교회 봉사 선교사로서 안내 관리자이기도 하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는 아직도 많이 있다.

“이 일은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입니다.”라고 와이팅 장로는 말했다. “바로 이 사무실만 해도 당장 줄 수 있는

일이 160가지나 됩니다.”

일자리 목록은 LDS.org에서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으며, 많은 와드와 지부가 그 지역에 있는 기회의 목록을 인쇄하여 건물에 게시하고 있다. ■

불과 석 달 전에 처음으로 봅슬레이를 타 보았는데, 그 이유는 캐나다 봅슬레이 팀이 국제 경기 출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앨버타 대학교 미식 축구 팀의 러닝 백으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선수들은 유럽으로 떠날 준비를 다 마쳤지만, 데이비드는 그때까지도 봅

토리노 올림픽: 후기 성도 선수들과 그들의 성취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 경기에서, 나아가 시상대에서도 후기 성도 운동 선수들은 교회를 크게 빛내 주었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들에서 온 회원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승인된 종목들 가운데 거의 반이나 되는 종목에 출전했다. 나이를 막론하고 회원들은 최선을 다했으며 세계 무대에서 그들의 꿈을 펼쳤다.

미국 대표팀의 쇼너 로벅 자매는 여성 2인조 봅슬레이 경기에서 최종 경주 기록 57.71초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유타 주 오렘 출신인 그녀는 28세로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축구와 육상을 한 후, 취미로 봅슬레이를 시작했다. 그녀는 두 종목에서 두 번이나 미국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이번 올림픽은 뒷다리 관절 인대 부상으로 인해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 탈락한 후로 그녀가 맞는 첫 번째 올림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 한 명의 처녀 출전 봅슬레이 선수이며 캐나다 앨버타 주 에드몬튼 출신의 회원인 데이비드 비셋 형제보다는 훨씬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

데이비드 형제는 올림픽 경기



미국의 쇼너 로벅 선수와 그녀의 동료 봅슬레이 선수가 토리노에서 결승점을 통과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슬레이를 타 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데이비드의 아버지 론 비셋 형제는 말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형제의 출발 시간은 올림픽 경기에서 세 번째 및 네 번째로 빨랐다. 그는 종합 11위를 차지했다.

집에서 대회를 시청하던 그의 부모는 아들이 정말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개막식 동안에 그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데이비드가 올림픽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을 보면서 휴대 전화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이비드는 우리와 통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어요.”라고 데이비드의 어머니 킴 비셋 자매는 말했다. “우리도 같이 손을 흔들 뻔 했어요.” 이제 데이비드가 집에서 좀더 가까운 밴쿠버에서 열리는 2010년 동계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계획을 갖고 있어 가족들의 마음이 설레고 있다.

유타 주 오렘 출신의 회원인 스티브 나이만 형제에게도 첫 번째 올림픽 경기였다. 그는 토리노에서 보았던 자원 봉사에 대해 깜짝 놀라며 집으로 돌아왔다.

“‘야아,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겸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티브는 이런 높은 수준의 대회에 출전한 첫 해에 활강 경기에서는 19위를, super-G 경기에서는 43위를 차지했으며, 활강 경기를 하는 날에는 언덕에서 24번째 생일을 맞았다.

“저는 몇 가지 큰 실수를 했지만, 아래까지 내려가서 표시판에 제 이름과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했습니다.”라고 스티브는 말했다.

눈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유대는 호주

쿰바에서 온 스노우보드 선수, 토라 브라이트 자매에게 중요한 일이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는 그녀도 처음이었다. 그녀의 오빠 벤이 그녀의 스노우보드 코치이며, 언니 로웨나는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 알파인 스키에 출전했다. 그리고 여동생 애비는 유망한 스노우보드 선수이다. 토라는 불과 19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에 출전해 메달권에서 딱 2단계가 부족한 5위에 들어왔다.

선수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쪽에는 52세의 베르네르 오에헤르 형제가 올해의 남자 최고령 선수로 루지 종목에서 베네수엘라를 대표하여 출전했다. 2002년 동계 올림픽 경기에서 그는 당시 18살된 아들 크리스와 함께 출전하여 같은 올림픽 경기 같은 종목에서 서로 경쟁을 한 최초의 부자로 기록되었다. 2002년에 40위를 차지했던 그는 올해 32위로 올라섰다.

오에헤르 부자는 동료 후기 성도 올림픽 루지 선수로, 올해 올림픽 경기에 아르헨티나를 대표해 출전한 미셸 데스페인 선수와 친한 친구이다. 베르네르 형제는 미셸이 토리노 올림픽 경기에 대비해 훈련을 하고 예선을 치르는 동안 위험천만하게 넘어진 후에 그녀에게 신권 축복을 해 줄 기회를 갖는 영광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셸은 현저하게 회복되었으며, 비록 올림픽 경기 네 번의 경주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출전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켜 주기도 했다.

동료 루지 선수인 앤 애버내티는 미셸과 여자 루지팀 선수들 모두가 서명한 선



베네수엘라의 베르네르 오에헤르 형제는 올해 올림픽 경기에서 남자 최고령 출전 선수였다. 그는 남자 루지 경기에서 32위를 차지했다.

물을 받은 후 보여 준 미셸의 친절에 주목했다. “아르헨티나의 미셸 데스페인 선수가 좋은 글귀를 써 주었습니다.”라고 애버내티 선수는 AP 통신에게 말했다. “그녀는 ‘앤, 당신의 모범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글이 저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다른 후기 성도 운동 선수들 중에는 올림픽에서 6위를 차지한 독일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골키퍼 스테파니에 바르토치 쿠에르텐 선수와 미국의 에어리얼 스키 출전 선수인 조 맥이 있다.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조는 올해 15위를 차지했다.

스티브 나이만 형제는 올림픽 경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괄목할 만한 경험입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파악하고, 2010년에는 출전 자격을 획득해야죠.” ■



아르헨티나의 미셸 데스페인 카르바할 자매는 연습 경주 동안 끔찍한 충돌을 겪은 후 받은 신권 축복으로 인해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교회, 새로운 회원들에게 리아호나 특별호를 권하다

리아호나 2006년 10월호는 약간 달라 보일 수도 있다.

새로운 회원을 위한 특별호인 리아호나 2006년 10월호에는 최근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말씀들이 실릴 예정이다.

교회 잡지를 관리하는 집행 책임자 제이 이 젠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께서는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고]’ (교리와 성약 18:10) 말씀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환영하는 우리의 새로운 형제자매들에 대해 수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 각각을 사랑하고 그들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특별호를 통해 그들이 가진 공통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의 환영 말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모든 회원이 알기 바라는 것, 교회의 조직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사항-이 모든 주제들과 그 밖의 주제들이 새로운 회원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만든 잡지에 포함된다.

오래된 회원들에게는 새로운 회원들을 위한 특별호를 받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새로운 회원들을 양육하는 일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호는 모든 회원들을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회원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그들이 좀더 잘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어려움에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포함된다. 새로운 용어, 모임, 가르침이 새로운 회원들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겠다는 결정에 대해 친구와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별호는 이러한 우려 사항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특별호 안에는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고, 간증이 담겨 있으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들어오겠다는 제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갖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어떻게 대답

할 수 있나요?”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와 같은 질문이다.

특별호에는 제일회장단 메시지, 방문 교육 메시지, 함께 나누는 시간, 후기 성도의 소리를 포함하여 평소의 모든 기사들이 게재되지만, 각 기사마다 새로운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길 예정이다. 많은 개종자들이 새로운 회원으로서 겪는 문제들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누게 된다. 특별호에는 또한 교회 잡지에 대한 소개와 잡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제언이 포함된다.

젠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종은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회원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교회 잡지, 특히 이 특별호가 복음에 따라 살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강화해 주고, 그들이 교회에 완전히 들어오고 그 안에 남아서 복음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도록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잡지의 내용에 친숙하게 되라는 격려와 함께 이 특별호를 모든 회원들에게 권한다. 새로운 회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구독 신청을 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지역의 배부 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국제 무용수들, 50주년을 기념하다

50년 동안, 50 여 개국 이상에서, 브리검 영 대학교 국제 민속 무용단(IFDE)은 학교 사절단으로 공연을 해 왔다. 세계 곳곳의 문화에 바탕을 둔 무용 활동 반세기기를 기념하는 올해에 그들은 과거 방문한 적이 없는 세 나라, 즉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로 공연을 갈 예정이다.

올해 그들의 레퍼토리는 10개 국가의 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월 말, 무용단은 연례 하계 여행을 위한 준비로 10일 동안 순회 공연을 가졌다. 올 여름 그들은 발트해 연안 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처럼, 이들 3개국 또한 민속 무용

면에서 풍부한 유산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의 전통적인 무용 중 하나인 호파크는 30년이 넘도록 무용단의 공연 레퍼토리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무용은 흥미진진해요. 움직임과 회전이 거의 곡예 수준입니다.”라고 에드윈 지 오스틴 무용단장은 말했다.

“힘이 드는 무용이에요.”라고 무용수인 에디 차는 말했다. 그는 호파크의 다양한 움직임, 예를 들어 무용수들이 쭉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발로 내치는 ‘오리걸음’, 또는 4명의 무용수가 둘씩 짝지어 한 조가 되어 서로의 위로 날아오르는 ‘4인조 나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호파크를 발트해 연안 국가에서 공연한 후, 무용단은 국제 무용 예술제의 비공식 초청에 따라 캐나다 퀘벡으로 여행할 예정이다. 오스틴 형제는 이 무용단이 국제 무용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 여행의 목적은 두 가지, 즉 사람들이 자신의 국가에서 교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곳의 회원들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차 형제는 이 점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그는 한국 서울에 있는 집에서 브리검 영 대학교로 온 직후에 이 팀에 합류했다. 그는 지난 해 무용단이 공연했던 전통 부채춤을 기억한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라고 차 형제는 말했다.

무용단은 설립자인 매리 비 켄슨의 지도 하에 1956년, 불과 네 쌍에서 여섯 쌍의 무용수만으로 출발했다. 1964년에 켄슨 자매는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필요한 기금을 마련해 무용단을 대동하고 최초의 국제 순회 공연을 떠났다. 그것이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국제 순회 공연을 떠난 최초의 학생 그룹이었다. 현재는 180명의 무용 단원들 가운데 30명이 순

회 팀에 소속되어 있다.

오스틴 형제는 켄슨 자매의 뒤를 이어 무용단의 단장이 되었다. 그는 5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이 무용단에서 불과 두 번째로 단장이 된 사람이다. 초기의 국제 순회 공연은 그들이 다녔던 나라의 민속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곳에서 이름을 소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 그룹은 교회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들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라고 오스틴 형제는 말했다.

오스틴 형제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 시절 켄슨 자매의 지도 하에 그룹의 일원

으로 무용을 했다. 또한 그는 무용단에서 아내를 만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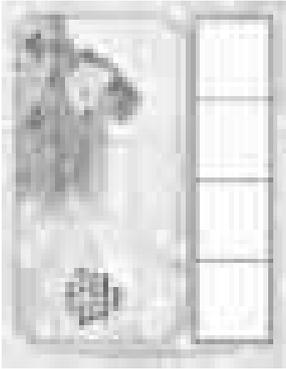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 중에서도 이 그룹과 함께 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라고 오스틴 형제는 말했다.

또한 이 그룹은 여행하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에게 표준과 신앙에 대한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의 교회는 규모 면에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오스틴 형제는 올 여름에 그곳에 간다는 사실에 마음을 설레고 있다. ■



브리검 영 대학교 국제 민속 무용단이 2006년 6월에 설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2006년 7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6년 7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를 참조한다.

1. 초등학교의 각 교사에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간단한 경험을 나눌 준비를 해오게 한다. 고학년 어린이들에게는 리아호나에 나오는 제언된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고 확실히 말한다. 리아호나에 있는 다음 이야기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직접, 또는 고학년 어린이들을 통해 들려 준다. “기도라는 구멍 뱃줄”,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2003년 7월호, 친2~3쪽; “커가는 간증”,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2003년 4월호, 친2~3쪽. 기도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교사 주위에 작은 그룹으로 모이게 한다. 교사들이 기도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고, 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나누도록 한다.(어떤 경험들은 나누기에 너무 성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다.) 어린이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각 그룹이 경험을 그룹 전체와 나누게 한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반응을 들어 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간증한다.

2. 노래 발표: “주 앞에 나와”(어린이 노래책, 80쪽) 이 노래는 사실 선율이 있는 기도이다. 첫째 소절을 가르칠 때, “우리는 자신의 기도가 누구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첫째 소절을 노래한다. 어린이들에게 그 질문에 답하게 한다.(“주 앞

에”-주님의 방법) 첫째 소절을 다 함께 노래한다. 각 소절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가르친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일에서 인도를 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죠?”라고 말한다. 둘째 소절을 부르고, 어린이들이 뒤따라서 대답하게 한다.(“내 해야 할 일”)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까?”라고 묻는다. 셋째 소절을 노래한다. 어린이들에게 뒤따라서 대답하게 한다.(“주님의 뜻을”)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라고 묻는다. 마지막 소절을 노래한다. 어린이들에게 뒤따라서 대답하게 한다.(“주님의 말씀”) 노래 전체를 부르고 교리와 성약 112편 10절을 나눈 후, 기도는 응답된다고 간증한다. ■



충성스러운 동생으로부터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홍성미 자매 가족

작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 남편인 김윤희 형제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국인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한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해 보았지만 그 날따라 남편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내키지 않았던 제 마음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이내 흔들렸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봉사하는 진솔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척 편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음 토론을 하고 작년 7월 17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제 딸 현진이는 만 8세가 되면 남편의 손을 빌려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남편 김윤희 형제는 저보다 훨씬 전인,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에 이미 침례를 받았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영어를 써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어에 도움을 받고자 길에서 본 외국인 선교사를 남편이 먼저 찾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보고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평들로 공격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교회 친구들이 유학이며 여러 이유로 와드를 떠나면서 남편은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교회를 잊고 살았습니다.



성공한 사회인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 온 남편에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되돌려 준 일은 작년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동생이라고 부르던 동료가 등을 돌리는 바람에 직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제적인 충격보다 남편은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겪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듯이 남편은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은 몇 년 전에 받았던 이메일 한 통을 열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메일은 20년 전, 남편에게 침례를 주었던 선교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분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금 브라이스 형제님은 BYU에서 경제학 교수로 일하고 있고, 일 때문에 한국에 간혹 오는데 그때마다 남편을 찾아 보려 했다고, 또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편지는 담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스 형제님은 편지를 끝마치면서 “충성스러운 동생”이라 써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 준 그 충성스러운 동생을 생각하며 남편은 20년 전의 감동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진정한 친구가 있는 교회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14로 전화를 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은 남편은 저와 현진이의 손을 잡고 지금 저희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교회에 온 것이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김 형제는 선교책임자로 부름을 받았고, 저도 영어 회화반 코디네이터로, 와드 선교사로 함께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과 토론할 때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에 들어 온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현진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서대로 안정되게 자랄 것을 무척 기대합니다. 저 또한 그것이 교회에서 받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모토처럼 말이죠. ■



홍성미 자매 침례식에서.

우리들의 운명의 대회

울창한 숲에서, 시원한 바다에서 매년 후기 성도 독신 회원들이 치르는 여름나기 의식 청년 대회. 이곳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품은 공통된 꿈 한 가지는 바로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일일 것이다. 이 꿈을 이룬 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올 해 여름, 전국 각지의 대회에서 전개될 드라마를 미리 그려보자.

들꽃으로 마음을 전하다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신남희 자매

1998년 변산반도에서 열렸던 광주, 전주, 순천 지역 합동 청년 대회에서 남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저희는 같은 대대였는데, 대대원끼리 서로 소개하는 자리에서 처음 고 형제를 봤던 일이 생각납니다. 곧 선교 사업을 나갈 거라며 자기를 소개하는데 형제 주변에 빛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고 형제가 창가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보지만, 참 성실해 보이고 교회 부름을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을 때 좋은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산행을 할 때였는데, 꽃을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고 형제가 산에 핀 들꽃을 꺾어서 다른 사람들 몰래 건네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 모습이 꼭 시골 총각과 처녀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꽃을 받고 형제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며 형제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제 뒷모습을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대회를 마치고도 편지로 연락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 떨어져 살았기에 편지를 통할 수 밖에 없었는데, 조금 있다가는 두 사람 다 선교 사업을 나가서 편지를 통해서만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데이트는 귀환 후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를 전주 덕진 공원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노를 저었던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너무 행복해서 이 상태로 저와 영원히 함께했

으면 하고 생각했다고 합

왼쪽: 고광필 형제와 신남희 자매 결혼 사진.
오른쪽: 맨 위 오른쪽에 고광필 형제가, 맨 아래 오른쪽에 신남희 자매가 같은 대대원으로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니다. 저는 남편이 살던 제주도에 갔을 때, 아름다운 해변에서 야경을 구경하며 '이 멋진 장면을 고 형제와 함께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귀환 후에 아직 직업이 확실하지 않았던 남편을 저희 가족들이 탐탐치 않아 했고,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회 회원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으며 결혼식을 할 때 재정적인 도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저희는 매주 가정의 밤, 가족 기도, 가족 경전 읽기를 거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신 회원들이 지닌 어려운 점들을 영원한 결혼을 통해 해결하도록 방안을 예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신앙이 있다면 분명 그렇게 됩니다.

저희는 단칸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추억 중 한 가지는 화장실 사건인데, 저희 집 화장실은 들어 갔다가 나오면 온 몸에 냄새가 지독하게 배는 구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공원에 있는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을 자주 이용했는데, 남편은 "우리 집 화장실은 청소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화장실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되려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교회 회원 댁에 초대를 받아 배부르게 먹고 왔는데 배가 짜르르 아프면서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그 때 자신도 배가 아프면서 저를 업고 공원 화장실을 향해 힘껏 뛰었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임대아파트이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뱃속에 있는 일명 "건강이"도 몇 달 후에 저희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복음 원리를 실천하며 열심히 사는 오늘을 건강이에게 보여 주고 싶습니다.

운명의 대회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장용석 형제 가족

저희 부부는 1997년 대전과 마산의 합동 청년 대회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내는 다른 대회와 별반 다른 기억이 없는 해였다고 하지만 저는 그 대회를 "운명의 대회"라고 부릅니다. 대회 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디선가 또랑또랑하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서도 제 귀에만 유독 똑똑히 들려왔던 목소리를 가진 아내는 눈



왼쪽부터 김지우 자매, 큰 딸 장수연 자매, 막내 장지은 자매, 장용석 형제

이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자매를 지켜보며 저는 말 그대로 첫 눈에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저는 대회 중간에 말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용기를 내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며 끙끙 앓던 그 때, 우연히 친한 회원의 아이 돌잔치에 갔다가 또다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요. 아내도 그 때 놀랐다고 합니다. 우연히 참석한 돌잔치에서 자기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형제가 있어서 말입니다.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굳은 결심으로 아내에게 다가갔고, 저희는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때 제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숫기도 없고 말수도 적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참 착하고 신중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랑이었죠.

저희는 서울과 창원을 오가면서, 편지와 전화를 통해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년. 저희는 드디어 꿈에 바라던 성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꽃처럼 예쁜 두 딸 수연이와 지은이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회는 비슷한 점이 없는 형제와 자매들이 만나서 서로의 좋은 점을 찾아보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결혼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독신 회원들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점 없이 만났지만 이제 가족으로 닮아가는 저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 신영숙 자매

스무 살을 갓 넘겼을 때는 여러 지역에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좋아서, 20대 중반에는 선교 사업 때 만난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신영숙 자매와 남편 김양우 형제, 그리고 부부의 첫째 딸 김예은 자매

있다는 기쁨에 대해 청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결혼 적령기인 나이가 될 때까지 유혹이 많았지만 매해 청년 대회에 가려 했던 제 노력은 저희 남편 김양우 형제를 만난 2001년에 중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김 형제는 청주에서 온 회원이었습니다. 같은 대대여서 자연스럽게 함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처음에는 같은 목표를 가진 회원으로 호감만 가졌을뿐 이성으로 느끼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계속될수록 수많은 형제들 속에서 김 형제가 유독 빛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개회를 할 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경전을 들고 1등으로 와서 대대원들을 기다리는 모습이며,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밤 늦게까지 준비하는 그 책임감과 열성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나중에 김 형제가 제게 이야기했지만 김 형제도 제가 새내기 독신 회원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챙기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며 호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는 이메일과 인터넷 메

신저를 하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해서 밤을 꼬박 새운 적도 있습니다. 찬송가 mp3도 다운받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영생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이 쌓였고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제 배우자의 모습을 김 형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연은 주님의 인도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2년 여 동안 사랑을 키워가던 저희는 2003년 4월 5일에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이제 저희 사이에는 세 살된 딸 예은이도 함께 합니다. 요즘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예은이와 남편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물론경이야기를 읽는 순간입니다. 청년 대회에서 얻은 축복과 신앙의 힘으로 이룬 결혼은 끝이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을 향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저희 가족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는 청년 대회에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게 해 주셨고 성전 결혼까지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그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놓쳐버렸을지 모릅니다. 항상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인내한다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꼭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읍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려다 이런 일도 겪어 봤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대, 직장, 학교 등 사회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경험과 간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도움은 여러분의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봉사하는 리아호나 기자들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문: 지혜의 말씀에 얽힌 경험과 그를 통해 얻은 간증
사진: 본인 사진(증명 사진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 속 현장, 즉 이야기와 관련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권장합니다)
기한: 8월 25일까지

예수님에 대한 어린이들의 간증, 그 마음을 담은 그림

12월에 실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로 초등회 어린이들의 간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

과 순간, 어린이의 간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짧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그린 그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초등회 역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부문: 예수님에 대한 초등회 어린이의 간증이나 간증을 담은 그림
사진: 본인 사진(증명 사진이 아닌 것)
기한: 10월 25일까지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이민희)
문의 전화: 02-2232-1441(내선 번호 562)

제2회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



한국 공보 위원회와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중앙 매일 신문에서 후원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가 지난 4월 22일, 서울 북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열렸다. 공보 선교사 판스워드 부부와 서울 선교부 부부 선교사 존슨 부부, 피제이 로저스 형제, 그리고 중앙 매일 해럴드 국제 신문의 트레이시 배럿 편집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7개 스테

이크와 5개 지방부에서 온 66명의 학생들이 “가족”이라는 주제로 영어 말하기 실력을 선보였다. 그 중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김영원 형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가족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높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 사랑하는 가족은 힘들 때 저를 보호하는 성과 같습니다. …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어려운 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한 가족을 이룬다면 이 사회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라며 행복한 가족이 주는 축복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회 부문별 최종 우승은 고등부에 부산 스테이크 송성이 자매가, 중등부에 대구 스테이크 김영원 형제, 초등부에 전주 스테이크 이수빈 자매가 차지했다. 이들 우승자들과 준우승자들은 모두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에서 어학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비용이 부상으로 주어졌다.(판스워드 자매 기사 제공) ■

브리검 영 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 방한

브리검 영 대학교 매리어트 경영대학원 네드 시 힐 학장과 동대학원 더블류 스티브 알브레크트 박사가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공보 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방문에서 힐 형제와 알브레크트 형제는 한국의 기업체와 학계, 언론 및 지역 사회 인사들을 만나 여러 차례의 강연회에 출연했고, 5월 7일에는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청년 독신 성인 노변의 모임과 서울 선교부 선교사들과 함께한 노변의 모임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힐 형제와 알브레크트 형제는 한국 공인회계사(KICPA),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리 인터내셔널 법률 사무소, LG 그룹 이사진과 함께 한 강연회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범하는 비윤리적 행위의 부당함과 좋은 윤리의 성립에 대한 주제로 말씀했고, LG그룹 강연회 후에 그룹 내 BYU 졸업생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같은 내용의 강연회가 서울 대학교, 연세 대학교, 경희 대학교에서 열렸다.

두 연사는 강연회와 노변의 모임을 통해 “좋은 기업 윤리는 좋은 비즈니스로 이끕니다. … 윤리적 행위는 더 깊은 이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공정한 보수, 공평한 경쟁을 통해 가치가 부여됩니다. 이는 또한 단순히 옳은 일이기도 합니다.”라며 이러한 윤리를 정부가 합법화하고, 대학이 가르치며, 기업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식견을 제시했다. 또한 도덕성을 저버리는 사소한 타협들이 부른 좋지 못한 결과들을 말하며, 작은 선택이라도 올바르게 정직하게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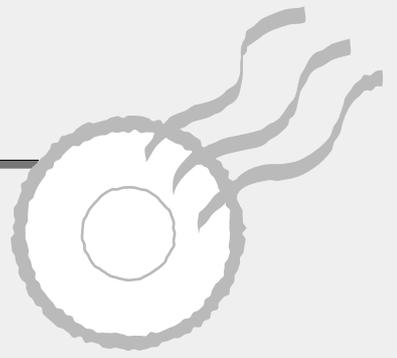
한 힐 형제는 자녀를 윤리적으로 키우려면 “부모가 윤리적인 행위의 모범이 되고 이러한 행위를 식별해야” 한다며 사회 윤리의 시작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했다. 한편 두 연사의 한국 방문 활동과 인터뷰 기사가 매일 경제 신문과 매일 경제 방송 MBN에 보도되었다.(판스워드 자매 기사 제공) ■



매일 경제 신문에 실린 브리검 영 대학교 힐 학장과 알브레크트 박사의 인터뷰 기사



성전에서 보낸 편지



이도환 성전 회장

서울 성전이 헌납되고 지난 20년 동안, 이곳에는 국내외에서 온 수많은 성전 선교사들이 봉사를 해 왔습니다. 현재 성전 선교사들은 미국 볼티모어에서 오신 천낙서 장로 내외와 유타 주에서 오신 권 장로 내외, 그리고 인천 스테이크에서 오신 박양효 자매님과 서울 북 스테이크 출신인 김현분 자매님, 유타 주에서 오신 김휘나 자매님 등 모두 일곱 분이 계십니다.

김현분 자매님은 “저는 10년(1986년부터 선교 사업 시작)의 선교 사업을 채우기 위해 여덟 번째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항상 즐겁습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8년 전에 성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시다 돌아가신 남편 안희운 형제님이 항상 가까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사하시는 김휘나 자매님은 “가장 소중한 남편 김차봉 형제를 잃었지만 반면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고통과 행복, 아픔과 즐거움, 기쁨의 경험을 하도록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진리를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쁨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도 참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새삼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선교사는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값진 기회입니다. 이곳에서 봉사함으로써 저의 네 자녀와 열 명의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도왔던 할머니로 기쁨을 남기고 싶습니다.”라고 간증을 전합니다.

부부가 함께 봉사하는 분들은 또다른 기쁨을 전하십니다. 천낙서 장로님의 동반자 천인덕 자매님은 “딸 일곱을 뒷바라지 하다보니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 기회가 참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스물네 시간 함께 지내고 봉사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기회가 성전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갖지 못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중한 경험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성전 선교사로 봉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복음 생활의 기쁨을 자녀들에게 말뿐 아니라 모범으로 보여주고자 선교 사업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주님께 헌납하는 이 귀중한 기회를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선교사 경비는 부부가 생활할 경우 집세와 각종 공과금을 포함하여 매월 35만원 정도를 납부하며 그 외에 개인 생활비 및 잡비가 필요합니다. 오전 9시 30분에 성전 봉사를 시작하여 오후 5시 30분에 마치는 것이 성전 선교사들의 일과입니다. 예외인 날은 새벽 6시 의식이 있는 수요일과 오전 7시부터 봉사하기 시작하는 토요일입니다. 서울 성전의 선교사 정원은 원래 18명인데 지금은 방이 다섯 개나 비어 있어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사업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소망,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헌납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동참하실 여러분을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성전 선교사들. 뒷줄 왼쪽부터 권 자매, 권 장로, 이도환 성전 회장, 천낙서 장로, 천인덕 자매, 김재숙 자매, 박양효 자매, 김현분 자매, 김휘나 자매.

최현민 형제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06년 1월 어느 토요일, 추운 겨울 오후였습니다. 전도를 하던 중에 저의 동반자 킹 장로가 기차역 근처를 배회하던 최 형제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최현민 형제님은 11년 전에 당한 교통 사고로 말하는 능력을 잃어 버린 21살 청년이었습니다. 너무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는 본인에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제 동반자는 최 형제님을 전에도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특별한 느낌을 받아 대화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하고 글씨를 써서 이야기하는 형제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킹 장로가 저를 불렀고 우리는 기차역 대합실에 함께 앉아 구원의 계획과 부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최 형제님은 온전하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기분 좋게 받아들였고 아주 해맑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형제님이 교회에 참석했고 우리의 토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경전 구절을 나눌 때는 “와!”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종이에 써야했기 때문에 조금은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2주 후, 2월 4일, 최현민 형제님은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 주에 확신 의식을 받았습니다.

걸어서 한 시간 걸리는 교회에 늦게 도착할까봐 항상 뛰어 왔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매주 성찬을 취하는 그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3월 중순에 형제님은 아론 신권 제사에 성임되었고, 저희 일정이 바빠지면서 2주 동안 평일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에 다시 만나 물몬경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진행되던 중 저와 동반자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종이에 쓰지 않고 그분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저와 제 외국인 동반자 네슬리 장로가 알아듣기에 충분했습니다. 10년 넘게 말 못하던 청년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10년 전 사고가 났을 때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었고 오랫동안 걸을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



최현민 형제의 침례식에서

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그 느낌을 다시 받았으며 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고 연습했습니다.”

이제 최형제님은 교회에서 찬송가도 부릅니다. 할머니께서 불교 신자셔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너무 행복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최현민 형제님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지역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아론 신권 기념 행사
- 인천 스테이크 인천 스테이크 대회
- 전주 스테이크 전주 스테이크 대회
- 제주 지방부 제주 지방부 대회

새로 부름받은 서울 선교부 조만구 회장



한국 서울 선교부의 새로운 회장으로 조만구 형제가 부름을 받았다. 2006년 7월 1일부터 조만구 회장은 아내인 민영재 자매와 함께 서울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선교부 회장으로 부임하며 조만구 회장은 “32년 전에 강원도 춘천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한 이래 한번도 서울 선교부 경계를 넘어보지 못한 제가 다른 곳도 아닌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름에 놀라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신앙과 겸손히 최선을 다할 때에 늘 도움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 부름에 충실하겠습니다.”라며 부름에 대한 감사함과 포부를 전했다. 조 회장은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서울 서종교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했고, 서울 성전 인봉자와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축복사로 봉사했으며 과거에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회장과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춘천 지부 회장, 장안 와드 감독으로 봉사했었다. 민영재 자매도 부름을 받기 전까지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초등회 교사로 봉사했고 조만구 회장과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다. ■

당신의 계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 전국 LDS 청년 음악제

11월 25일, 성탄절을 한 달 앞두고 한국의 청년 독신 성인들이 그들만의 축제, ‘2006년 전국 LDS 청년 음악제’를 개최합니다. ‘당신의 계절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준비될 이번 음악제에서는 청년 독신 성인들이 준비한 음악과 영상으로 만물의 시작인 봄과 화려한 만물의 외형, 달려감이라는 부제를 지닌 여름, 달려온 길을 돌아보는 가을, 그리고 깨달음과 성숙의 계절 겨울을 표현할 것입니다. 독신 회원들은 그룹을 짓거나 개인으로 음악제에 출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는 각 지역 종교교육원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대전시 우성 예술 회관

참여 대상: 전국 모든 청년 독신 성인

관객 대상: 전국 후기 성도 회원과 구도자들 모두 환영함

일시: 2006년 11월 25일

